

碩士學位論文

河間의 『內經』이론 활용에 대한 연구

慶熙大學校 韓醫學科 原典學教室

閔眞夏·丁彰炫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the theory in 『NAEKYUNG』by Liu Wansu

Min Jin-Ha·Jeong Chang-Hyun

Dept. of Oriental Medical Classics of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Kyung-Hee University.

Nowadays people suffer from the excessive stress, emotional disorder, lack of sleepness, overeating of rich fatty diet and irregular schedule. These things accumulate Fire inside humanbody through many ways. Fire, then, brings out many kinds of disease. How to treat Fire is important theme of the medicine.

Liu Wansu studied Fire as a important pathogenic factor. He evolved his theory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Xuanfu(玄府)- the sweat, Six Qi, emotional disorder and the climate condition and Fire. He payed great efforts to diagnose accurately and treat the disease on the ground of the theory based on The Yellow Emperors' Internal classic.

key words : Liu Wansu, 『Nae-Kyung』, pathogenic factor, the fire and heat

I . 緒 論

최근 병인 자체의 성질, 혹은 발병과정이 화열의 양상을 보이는 질병이 점차 늘고 있다. 각종 스트레스와 수면부족, 膏粱厚味の 과다섭취, 불규칙하고 무절제한 생활습관 등이 체내에 火를 축적하고, 그 결과 고혈압, 당뇨, 심장병 등 각종 성인병, 전염성이 강한 열성질환 등이 날로 증가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화열병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게 되었다.

화열병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사람은 유완소가 처음이라 할 수 있다. 그의 화열병에 대한 연구 성과는 후세 온병학의 형성과 발전에 토대가 되기도 했다. 유완소의 저작을 보면 화열병에 대한 이론에서 경험까지 많은 내용이 있는데 그는 이 내용들이 모두 내경에 뿌리를 둔 것이라 하였다. 따라서 유완소의 저작을 내경과 비교분석하여 화열병에 대한 정보 뿐 아니라 그가 내경으로부터 자신만의 사상을 끌어내는 과정까지 살펴보고자 한다.

劉完素는 火熱을 중요한 병인으로 보아 辛涼 苦寒한 약재들을 잘 활용하여 명의로 알려진 의가로서, 張子和, 李東垣, 朱丹溪와 함께 金元四大

* 交信著者 : 丁彰炫, 慶熙大學校 韓醫學科大學 原典學教室,
02) 961-0337, jeongch@khu.ac.kr.

醫家로 불리며 후세에 귀중한 저작을 많이 남겼다. 저서로는 『素問要旨論』, 『黃帝素問宣明論方』, 『素問玄機原病式』, 『傷寒直格』, 『素問病機氣宜保命集』 등이 있다.

그는 이전의 본초서에서 주의해서 써야한다고 강조한 약재들을 과감히 사용하여 火를 치료하였는데 위에 들어놓은 책들을 살펴보면 火에 대한 견해, 병증을 분석하고 진단하는 방법, 치료하는 방법 등이 독창적이고 광범위하며 경험에 근거하여 구체적이고 확실하다. 따라서 유완소의 저작을 통해 火를 이해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라 생각한다.

그는 「素問玄機原病式」 서문에서 자신의 法과 述이 모두 『黃帝內經』에서 나왔다고 하여 『黃帝內經』이 자신의 이론의 근본임을 밝혔다. 그의 여러 저작에서 『黃帝內經』은 무수히 인용되고 있으며, 병리, 진단, 치료 등 내용의 대부분이 『黃帝內經』의 문장을 근거로 삼아 전개되어 있다.

현재 찾아볼 수 있는 자료에는 화열론, 양기불울설, 운기설 등 유완소의 사상을 전체적으로 정리한 陳大舜 등의 『各家學說』¹⁾, 洪元植 등의 『中國醫學史』²⁾, 嚴世藝의 『中國學術史』³⁾, 李聰甫 등의 『金元四大醫家學術思想研究』⁴⁾ 등이 있으며 易法銀⁵⁾, 張傳友⁶⁾, 孟繁潔⁷⁾, 鄭曉紅⁸⁾, 由風鳴⁹⁾, 宋益東¹⁰⁾ 등은 논문에서 火鬱에 관한 내용을 『內經』

』과의 관계 속에서 살피고 있다. 논문의 주제나 논문의 개수 등에서 볼 때 유완소에 대한 연구는 이동원이나 주단계에 대한 연구만큼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논자 또한 유완소의 학술사상, 특히 火에 대한 부분을 『內經』과의 관계를 통해 풀어보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그 과정의 하나로 유완소의 학술사상을 정리하는 한편, 『河間醫集』 중 네 편의 책을 선택하여 그 책에 있는 『內經』문장 중 『內經』인용문임을 표시한 모든 문장을 모아 각각 『內經』어느 편에서 인용한 것인지 찾고, 『河間醫集』의 문장과 실제 『內經』문장을 비교할 것이다. 그 결과 『內經』의 어떤 편에 무게를 두었는지, 유완소가 『內經』으로부터 어떻게 자신의 의학사상을 구성해낼 수 있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II. 本 論

1. 劉完素의 『內經』 인용방식

유완소의 의학사상은 “나의 法과 術은 모두 『內經』에서 나왔다(法之與術, 悉出『內經』¹¹⁾)”로 요약될 수 있다. 그는 『內經』의 운기학설과 病機十九條를 토대로 삼고 「至眞要大論」 「熱論」 등 여러 편의 영향 위에 자신의 독특한 견해를 세웠다.¹²⁾¹³⁾

유완소의 저작을 모아놓은 『河間醫集』을 살펴보면 『內經』인용문이 아주 많다. 따라서 유완소의 저작에 실린 『內經』문장을 통해 유완소가 『內經』의 어떤 부분을 중시하였으며, 어떤 부분으로부터 그의 학술사상을 이끌어내게 되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이하는 유완소의 저작 중 특히 『內經』과 관계가 많으리라 생각되는 「素問要旨論」 「黃帝素問宣明論方」 「素問玄機原病式」 「素問病機氣宜保命集」

1) 陳大舜 外 主編, 맹용재 외 옮김, 『各家學說』 中國篇, 서울, 대성의학사, 2001.

2) 洪元植 外 編著, 『增補中國醫學史』 서울, 一中社, 2001.

3) 嚴世藝 主編, 『中國學術史』, 서울, 一中社, 1991.

4) 李聰甫 外 共編著, 『金元四大醫家學術思想研究』, 서울, 成輔社, 1982.

5) 易法銀, 『金元四大家論治火熱證之特色』 中醫雜誌, 第 34 卷 第6期, 1993.

6) 張傳友, 『鬱火致病探討』 山東中醫雜誌, 第 21 卷 第10期, 2002.

7) 孟繁潔 外, 『劉完素 “開鬱”法之探討』, 浙江中醫雜誌, 2002.

8) 鄭曉紅, 『內經火鬱發之探析』 遼寧中醫雜誌, 第26卷第2期, 1999.

9) 由風鳴, 『火鬱發之指導火熱病治療探微』, 遼寧中醫雜誌, 第26卷 第2期, 1999.

10) 宋益東, 『“火鬱”及“火鬱發之”』 山東中醫雜誌, 第12卷 第6期, 1993.

11) 劉河間 撰, 孫洽熙 編校, 『河間醫集』, 人民衛生出版社, 1995, 383쪽.

12) 李聰甫 外 共編著, 앞의 책, 4쪽.

13) 陳大舜 外 主編, 앞의 책, 83쪽.

을 선택하여 각 책에 인용문임을 제시하고 실어 놓은 『內經』의 문장을 모아 인용편명, 인용빈도 등을 살펴본 결과이다.

1) 인용문의 내용

인용문의 내용은 주로 의학의 기본이론, 생리, 병리(잡병과 병기), 진단(맥), 치병(치료원칙, 처방, 양생), 운기 등이다.

간략히 살펴보면 “天은 陽氣는 發生시키고 陰氣는 자라게 하며 地는 陽氣는 殺하고 陰氣는 갈무리한다.”¹⁴⁾ “陰陽은 天地의 道이니, 萬物의 綱紀이며 變化의 父母이며 生殺의 本始이며 神明의 府이라”¹⁵⁾ “積陽이 天이 되고 積陰이 地가 되며 陽은 氣를 化하고 陰은 形을 成한다.”¹⁶⁾ “標本의 道는 간단하나 넓고 적으나 크며, 가히 一을 말함에 百病의 害를 안다, 標와 本을 말하기는 쉬우나 (施治함에) 손상됨이 없고 本과 標를 살펴면 氣를 가히 調하게 할 수 있으며 勝復을 밝게 알면 萬民의 式이 되나니, 天道를 畢하였다”¹⁷⁾ 등 음양오행, 표본에 관한 내용 외에 의학자의 기본 자세 등의 한의학의 기본이 되는 원리를 설명하는 문장이 많이 보인다.

생리에 관해서는 “脈이란 血의 府다”¹⁸⁾ “肝은 두개의 넓은 잎과 한개의 작은 잎이 있다”¹⁹⁾ “눈이 血을 얻어 능히 보고 귀가 血을 얻어 능히 듣고 손가락이 血을 얻어 능히 쥐고 발이 血을 얻어 능히 걷는다.”²⁰⁾ 등 혈의 기능에 대한 것 등

장부의 형상과 기능에 대한 내용 등이 있다.

병리에 관해서는 傷寒, 육기, 장부의 병기와 병증, 병인, 혈, 항해승제, 출입승강 등 다양하면서도 풍부한 내용을 인용하고 있다. 몇 가지만 살펴보면 “사람이 寒에 상하면 熱에 病함이 되어”²¹⁾ “諸轉反戾, 水液渾濁은 모두 熱에 속한다.”²²⁾ 등 병기에 관한 것, “出入이 廢하면 神機가 化滅하고, 升降이 息하면 氣가 立하여 孤危해진다. 그러므로 出入함이 아니면 生長壯老死하지 못하고, 升降함이 아니면 生長化收藏하지 못한다. 이러한 까닭으로 升降 出入이 있지 않은 器는 없다”²³⁾ “怒하면 氣가 上하고, 喜하면 氣가 緩하고, 悲하면 氣가 消하고, 恐하면 氣가 下하고, 寒하면 氣가 收하고, 炆하면 氣가 泄하고, 驚하면 氣가 亂하고, 勞하면 氣가 耗하고, 思하면 氣가 結하여”²⁴⁾ 등 칠정병에 관한 내용, “飲食이 스스로 倍하면 腸胃가 이에 傷하고 起居를 驚한 듯이 하면, 神氣가 이에 浮하며”²⁵⁾ “모든 病이 일어나는 것은 心에서부터다”²⁶⁾ 등이 있다.

진단의 측면을 살펴보면 증상을 늘 맥으로 확인할 것을 강조하여 “諸 不應(손주인명맥이 상응하여 대소균등하지 않는)하는 者는 그 診을 反對로 하면 된다.”²⁷⁾ “寒氣가 脈外에 客하면 脈이

14) 劉河間, 앞의 책, 152쪽, 『素問·天元紀大論』第二章, 譯은 洪元植 校勘直解『黃帝內經素問』을 따랐다: “天以陽生陰長, 地以陽陰陰藏..”
 15) 같은 책, 395쪽, 『素問·陰陽應象大論』第一章: “陰陽者, 天地之道也, 萬物之綱紀, 變化之父母, 生殺之本始, 神明之府也.”
 16) 같은 책, 397쪽, 『素問·陰陽應象大論』第一章: “積陽爲天, 積陰爲地. 陽化氣, 陰成形.”
 17) 같은 책, 63쪽, 『素問·至眞要大論』第四章 第二節: “標本之道, 淺而博, 小而大, 可以言一而知百病之害, 言標與本, 易而勿損, 察本與標, 氣可令調, 明知勝復, 爲萬民式, 天道畢矣.”
 18) 같은 책, 395쪽, 『素問·脈要精微論』第二章: “夫脈者血之府.”
 19) 같은 책, 404쪽, 王冰次註 『素問·五運行大論』: “肝有二布葉 一小葉.”

20) 같은 책, 346, 295, 316쪽, 『素問·五藏生成論』第三章: “目得血而能視, 耳得血而能聽, 指得血而能攝, 掌得血而能握, 足得血而能步.”
 21) 같은 책, 348, 357쪽, 『素問·熱論』第一章: “人之傷於寒也, 則爲病熱.”
 22) 같은 책, 348쪽, 『素問·至眞要大論』第五章 第一節: “諸轉反戾, 水液渾濁, 皆屬於熱.”
 23) 같은 책, 369쪽, 『素問·六微旨大論』第四章: “出入廢, 則神機化滅, 升降息, 則氣立孤危. 故非出入, 則無以生長壯老已, 非升降, 則無以生長化收藏. 是以升降出入, 無器不有.”
 24) 같은 책, 175쪽, 『素問·舉痛論』第四章: “怒則氣上, 喜則氣緩, 悲則氣消, 恐則氣下, 寒則氣收, 炆則氣泄, 驚則氣亂, 思則氣結, 勞則氣耗.”
 25) 같은 책, 399쪽, 『素問·痺論』第三章과 『生氣通天論』第二章 第一節: “飲食自倍, 腸胃乃傷, 起居如驚, 神氣乃浮.”
 26) 같은 책, 406, 445쪽, 王冰次註 『素問·至眞要大論』: “百端之起 皆自心生.”
 27) 같은 책, 122쪽, 『素問·至眞要大論』第一章 第三節: “諸不應者, 反其診則見矣.”

寒하고, 脈이 寒하면 縮踈하고”²⁸⁾, “氣口脈이 盛堅한 것은 飲食에 傷한 것이다”²⁹⁾ 등 문장을 들어두었다.

치병에 있어서는 근본원인을 살필 것을 강조하여 “病을 治함엔 반드시 本에서 求해야 한다”³⁰⁾, “먼저 그 根屬을 除하고 후에 枝條를 削한다.”³¹⁾ 등의 문장을 들었으며, 그 외 각 병증의 금기, 용약의 구체적 원리, 자침법 등을 상세히 인용하였으며 양생을 중시하여 “精神이 內守하니, 病이 어디를 좇아 來하겠는가? … 그 마음을 快히 함을 務하여 生樂에 逆하고”³²⁾ 등의 문장도 들었다.

운기에 관한 내용은 특히 「素問要旨論」에 많으며, 「至眞要大論」의 문장 등 수많은 『內經』문장이 인용되어있다. “尤하면 害가 되고 承하여야 이에 制가 되는데, 制하여지면 生化되어 밖으로 盛衰함을 列하고 害하면 敗亂하여 生化가 크게 病이 듭니다.”³³⁾ 등 항해승제에 관한 내용, “木鬱은 이를 達하고, 火鬱은 이를 發하고, 土鬱은 이를 奪하고, 金鬱은 이를 泄하고, 水鬱은 이를 折합니다.” 등 五鬱에 관한 내용³⁴⁾, 육기가 장부를 상하는 것³⁵⁾ 등 많은 문장이 운기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인용되었다.

2) 각 책의 소문 인용빈도

「素問要旨論」에서는 주로 「至眞要大論」「六元正紀大論」「五常政大論」「六微旨大論」 등의 문장,

28) 같은 책, 308쪽, 『素問·舉痛論』第二章 第三節：“經曰寒氣客於脈外則脈寒，脈寒則踈縮。”

29) 같은 책, 449쪽, 『靈樞·五色』第一章 第二節：“氣口盛堅者，傷於食。”

30) 같은 책, 400쪽, 『素問·陰陽應象大論』第一章：“治病必求於本。”

31) 같은 책, 417쪽, 王冰次註 『素問·至眞要大論』：“先除其根屬後削其枝條也。”

32) 같은 책, 393쪽, 『素問·上古天真論』第二章：“精神內守，病安從來，務快其心，逆於生樂。”

33) 같은 책, 91쪽, 『素問·六微旨大論』第二章 第一節：“尤則害，承乃制，制則生化，外列盛衰，害則敗亂，生化大病。”

34) 같은 책, 163쪽, 『素問·六元正紀大論』第三章 第三節：“木鬱達之，火鬱發之，土鬱奪之，金鬱泄之，水鬱折之。”

35) 같은 책, 176쪽, 『素問·陰陽應象大論』第三章

즉 운기에 관한 문장을 많이 인용하고 있다. 전체 인용문중 운기에 관한 내용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운기 외 생리, 병리, 한의학의 이론, 진단, 치병에 이르기까지 모든 내용이 고루 언급되어 있다.

「黃帝素問宣明論方」에서는 책의 전반부에 『內經』각편에 나오는 병증에 대한 처방을 주로 제시하고 있다. 60여종³⁶⁾의 잡병을 들어 병기, 증상, 처방에 대해 서술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內經』여러 편의 문장이 고루 인용되어 있는데 특히 「痺論」「至眞要大論」「氣厥論」「風論」 등의 문장이 많다. 후반부에도 장부, 육기, 상한, 삼음삼양, 음양 등 다양한 내용에 대한 총론과 치료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素問玄機原病式」에서는 병리에 대한 내용을 많이 다루고 있다. 육기에 따른 병증, 장부에 따른 병증, 특정 증상에 대한 병기와 병증, 삼음삼양과 병리, 傷寒, 항해승제와 병리, 약의 폐해 등 다양한 내용이 있다. 『內經』중 「五常政大論」「六元正紀大論」「至眞要大論」의 문장이 많이 인용되고 있다.

「素問病機氣宜保命集」 상권은 운기, 생리, 병리, 이론, 치병 모든 부분을 다루고 있다. 특히 생리와 병리 그리고 치병에 대해 자세히 서술하고 있다. 생리에서는 맥, 장부생리, 기미의 작용, 혈기에 대해, 인신의 생리 등의 내용을, 병리에서는 상한병과 각종 병증, 병기에 대한 내용이 있다. 치병에 있어서는 양생에 대한 내용, 치병의 원칙, 실제 치법에 대한 내용이 자세하다. 「五運行大論」「陰陽應象大論」「至眞要大論」의 문장이 많이 인용되었다. 중권에서는 주로 병리에 대한 내용이 중심이 되는데 육기병증, 장부병증, 병인으로써의心和味, 계절에 상했을 때의 병증 등이 서술되어 있다. 「至眞要大論」「脈要精微論」「陰陽應象大論」의 문장이 자주 인용되었다. 하권 역시 병리에 대한 내용 위주로 여러 질병의 병증이 구체적으

36) 各家學說에는 61종으로 되어있다. 이는 실제 『內經』文章이 아닌 것을 제외한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劉河間이 『內經』의 문장으로 생각하여 수록한 雜病은 모두 살펴보면 60종이 넘는다. 잡병은 부록에 수록하였다.

로 기술되어 있으며 「六元正紀大論」「至眞要大論」의 문장이 많이 인용되었다.

명칭에 『素問』이 포함된 위의 네 책을 살펴보면 당시 병기십구조를 비롯한 「至眞要大論」의 문장을 가장 많이 인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 각 책에서 『素問』을 인용한 횟수

『素問要旨論』에서는 「至眞要大論」을 14회로 가장 많이 인용하고 있으며 그 외 「六元正紀大論」, 「五常政大論」, 「六微旨大論」 등을 자주 인용하였다. 『黃帝素問宣明論方』에서는 「風論」이 9회로 가장 많이 인용되었고 「氣厥論」, 「至眞要大論」 등이 그다음으로 자주 인용되었다. 『素問玄機原病式』에서는 「至眞要大論」이 7회 인용되었고 그 외 「六元正紀大論」, 「五常政大論」, 「六微旨大論」 등이 인용되었다. 『素問病機氣宜保命集』 상권에서는 「陰陽應象大論」이 10회로 많이 인용되었고 그 외 「至眞要大論」, 「五運行大論」 등이 자주 인용되었다. 중권에서는 「陰陽應象大論」, 「脈要精微論」 등이 자주 인용되었고 하권에서는 「至眞要大論」, 「六元正紀大論」, 「陰陽別論」 등이 자주 인용되었다.

(2) 『河間醫集』에서 자주 인용한 편명과 인용 횟수

『河間醫集』에서 유완소는 「至眞要大論」을 41회로 가장 많이 인용하였고 그 외 「陰陽應象大論」, 「六元正紀大論」, 「五常政大論」, 「六微旨大論」 등을 자주 인용하였다.

2. 劉完素의 의학이론과 『內經』

1) 火熱論과 『內經』

유완소는 병기십구조, 운기학설의 연구 외에 당시 시대적인 상황, 지리적인 환경, 생활습관, 용약습관 등의 영향을 받아 오운육기의 병기 중 火, 熱 2가지의 병기에 주목하여 연구한 끝에 화열을 중심으로 하는 學說을 내놓았다.³⁷⁾

37) 李聰甫 外, 앞의 책, 8쪽.

이에 그치지 않고 유완소는 병기십구조를 화열병기를 중심으로 확대하여 火熱이 광범위하게 병을 일으킨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素問·至眞要大論』에서 서술한 병기 가운데 화에 속하는 것은 脊冒, 口噤, 痲痺, 鼓慄, 浮腫, 酸疼, 衝逆, 驚駭, 狂, 躁 등의 10가지이고 열에 속하는 것은 轉筋, 脹滿, 嘔吐, 吐酸, 下迫, 泄瀉, 水液混濁의 7가지이다. 그러나 유완소는 「素問玄機原病式」에서 喘, 嘔, 吐酸, 暴注下迫, 轉筋, 小便渾濁, 腹脹大鼓之如鼓, 癰, 疽, 瘍, 疹, 瘤氣, 結核, 吐, 下, 霍亂, 脊, 鬱, 腫脹, 鼻塞, 衄衄, 血溢, 血泄, 淋瀝, 身熱, 惡寒, 戰慄, 驚, 惑, 悲, 笑, 譫妄, 衄衄, 血汗³⁸⁾ 등 34종의 병증과 脊癰, 暴痞, 冒昧, 躁擾, 狂越, 罵詈, 驚駭, 肘腫疼酸, 氣逆衝上, 禁慄如喪神守, 及嘔, 瘡, 瘍, 喉痺, 耳鳴, 耳聾, 嘔湧溢, 食不下, 目昧不明, 暴注, 閏瘧, 暴病, 暴死³⁹⁾ 등 23종의 병증을 합해서 57종의 병증으로 확대시켰다.⁴⁰⁾

氣喘, 氣鬱 등은 이전 병기설에서는 폐에 속하던 것이며 腫滿嘔吐는 脾, 上의 병기에 속하던 것들이다. 이에 대해 유완소는 “熱하면 숨소리가 잦고 거칠어 喘이 되고 胃膈에 熱이 심하면 嘔하게 되니 이는 火氣가 炎上하는 象이다”⁴¹⁾라고 해석하여 이들 병증을 모두 화에 배속시켰다. 또한 帶下를 예로 들면, “春은 木旺하여 多風한데, 風이 크면 오히려 涼하니, 이는 오히려 金化를 겸하여 木을 制하는 것이다. 大涼한 후에 天氣가 溫하니 이는 火가 金을 承한 것이다. 夏에 火熱이 極하면 木에서 出液하니, 이는 오히려 水化를 兼하여 火를 制하는 것이다”⁴²⁾라고 하여, 대하는 열이 極해

39) 劉河間, 앞의 책, 347쪽 : “諸病喘嘔吐酸, 暴注下迫, 轉筋, 小便渾濁, 腹脹大, 鼓之如鼓, 癰疽瘍疹, 瘤氣結核, 吐下霍亂, 脊鬱腫脹, 鼻塞衄衄, 血溢血泄, 淋瀝, 身熱惡寒戰慄, 驚惑悲笑譫妄, 衄衄血汗, 皆屬於熱.”

39) 같은 책, 361쪽 : “諸熱脊癰, 暴痞冒昧, 躁擾狂越, 罵詈驚駭, 肘腫疼酸, 氣逆衝上, 禁慄如喪神守, 及嘔瘡瘍喉痺, 耳鳴及聾, 嘔湧溢, 食不下, 目昧不明, 暴注閏瘧, 暴病暴死, 皆屬於火.”

40) 陳大舜 外, 앞의 책, 88쪽.

41) 劉河間, 앞의 책, 347쪽 : “熱則息數氣竄而爲喘也, 嘔胃膈熱甚則爲嘔, 火氣炎上之象也.”

42) 같은 책, 376쪽 : “春木旺而多風, 風大則反涼, 是反兼金化制其木也. 大涼之下, 天氣反溫, 乃火化承於金也, 夏火

진 결과 反兼水化하여 열을 제어하기 위한 것으로 곧 항해승제의 기전이라고 설명하였다.

화열병의 치료에 대해 유완소는 『內經』의 “治病必求於本”⁴³⁾에 입각하여 엄격한 변증론치의 입장에서 치병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는 표증을 마땅히 汗解시켜야 한다고 했다. 辛涼甘寒한 약으로 해표해열하는 것이 좋고 어쩔 수 없이 辛溫한 약을 써야만 할 경우 寒性의 약을 가미해야 하고, 표증에 내열이 겸한 경우 쌍해산, 방풍통성산 등 表裏雙解의 치법을 썼다.

리증에는 하법을 쓰는데 표증이 풀린 경우 승기탕류를 쓰고, 열독이 극심하여 혈분까지 영향을 미쳤을 경우 황련해독탕을 배합하는 등의 치법을 구사했다.

主火說은 병인으로써의 화열을 강조한 것으로, 『內經』의 병기론, 양기불을, 항해승제 이론 등이 종합되어 도출된 것이다. 따라서 양기불을에서 주화설의 내용도 같이 다루도록 하겠다.

2) 陽氣佛鬱說과 『內經』

(1) 陽氣佛鬱說

陽氣佛鬱은 主火說과 통하는 것이지만, ‘玄府’라는 개념이 강조되어 있다.⁴⁴⁾

『內經』에서는 현부를 ‘汗空(汗孔)’, ‘腠理’ 등으로 보았다. 유완소는 현부의 개념을 좀더 확장시켜 “皮膚의 汗孔은 氣液을 泄하는 孔竅를 말하는 것으로 一名 氣門이라 하니 氣의 門이라는 것이다. 一名 腠理라 함은 氣液이 出行하는 腠道紋理라는 것이고 一名 鬼門이라 함은 幽冥한 門이라는 뜻이며 一名 玄府라 함은 玄微한 府를 말함이다. 玄府는 없는 物이 없어 사람의 藏府皮毛肌肉筋膜骨髓爪牙에서 세상의 萬物에 이르기까지 모두 가지고 있는 것으로 氣가 出入升降하는 道路門戶이다”⁴⁵⁾라 하여 현부란 모든 物에 다 존재하

는 것으로 사람의 오장육부, 四肢百骸에 모두 있는 것이라 하였다. 인체의 모든 생리, 병리는 모두 현부와 관계있는 것이다. 현부는 모든 기기의 출입승강이 이루어지는 곳이므로 현부가 잘 통하면 氣機疏達하여 인체 각부가 정상활동을 유지할 수 있고, 현부가 막히면 기기도 壅塞되어 氣血不通하여 “目鬱하면 색을 볼 수 없고 耳鬱하면 소리를 들을 수 없으며 鼻鬱하면 香臭를 맡을 수 없고 舌鬱하면 맛을 알 수 없다. 筋痿骨痺 등 제대로 쓰지 못하는”⁴⁶⁾ 등의 각종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그 과정을 살펴보면 육기, 五志가 현부의 울결을 일으켜 기기가 막히게 되어 生冷조차도 화열로 되는 경우도 있고 陽熱 자체가 玄府佛鬱을 일으키기도 한다. 치법은 “發之”로 요약할 수 있는데 즉 그 세력을 이끌어 發散, 宣通, 發越, 消導 등의 방법을 써서 火氣의 鬱遏을 풀어주는 것이다.⁴⁷⁾⁴⁸⁾

① 宣法

宣法이란 宣散하여 현부를 통하게 하는 것이다. 그는 신온한 약을 특히 경계하여⁴⁹⁾ 방풍, 세신 등 신온한 약은 解鬱散結, 輕清宣泄하는 효과가 있으며 개울력이 약하고 성질이 따뜻하여 화

謂玄微府也, 然玄府者, 無物不有, 人之藏府皮毛肌肉筋膜骨髓爪牙, 至於世之萬物, 盡皆有之, 乃氣出入升降之道路門戶也.”

46) 같은 책, 355쪽: “目鬱則不能視色, 耳鬱則不能聽聲, 鼻鬱則不能聞香臭, 舌鬱則不能知味, 至如筋痿骨痺諸所出不能爲用, 皆熱甚鬱結之所致也.”

47) 宋益東, 앞의 책, 7쪽: “人體 中의 火氣는 生命活動의 原動力으로, 外에서는 護表하며 內에서는 健運하여 四肢百骸를 보호하고 五臟六腑의 功能活動을 유지한다. 正常情況 下에서는 運行不息하여 外로는 表에 達하고 內로는 里에 入하여 끝없이 循環하여 특별히 드러나지도 않고 妄動하지도 않는다. 病理情況 下에서는 어떤 因素의 影響을 받아 升降出入의 기전이 常度를 잃어 특정 부위에 막히고 울결되어 있어 火性이 빠져나가지 못하니 변하여 火邪가 되어 각종 火熱病證이 나타난다. 이러한 火鬱證은 마땅히 세력을 따라 利導해야 하니 鬱遏된 火氣가 發越宣泄하면 熱證이 자연히 그친다.”

48) 姜迎萍 外, 劉完素治熱四法初探, 國醫論壇 2002年 11月, 第17卷 第6期 16쪽.

49) 劉河間, 앞의 책, 351쪽.

熱極而體反出液, 是反兼水化制其火也.”

43) 李聰甫 外, 앞의 책 10쪽.

44) 孟繁潔 外, 앞의 책, 372쪽.

45) 劉河間, 앞의 책, 368쪽: “然皮膚之汗孔者, 謂泄氣液之孔竅也. 一名氣門. 謂氣之門也, 一名腠理者, 謂氣液出行之腠道紋理也. 一名鬼門者, 謂幽冥之門也, 一名玄府者,

열을 도울 염려가 있으니 사용량은 적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상엽, 박하, 석고, 담두시 등 신량한 해표약은 개울력은 약하며 성질이 서늘하니 사용시 제량은 상황에 따라 많게도 적게도 할 수 있으며, 신량, 신한한 지각, 청피, 천련자, 울금, 청목향 등의 행기약은 내부의鬱結을 치료할 수 있다 하였다.⁵⁰⁾

② 清法

유완소는 “小熱한 氣는 涼으로 和하고 大熱한 氣는 寒으로 取한다.”⁵¹⁾라 하였다. 이로 볼 때 열증이 심할 때는 清法을 쓴다. 清法에는 清散, 清降, 清泄, 清利의 구별이 있는데, 清散은 외감열병 초기에 陽熱이 표에 울하여 惡寒戰慄의 증이 있을 때 辛涼解表藥으로 울결을 펼치는 것으로 열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 開鬱散結, 解表透熱하는 방법이다.⁵²⁾ 清降은 상한잡병, 煩躁熱毒, 煩悶乾嘔, 口燥舌乾, 喘滿, 陽厥極甚, 蓄熱內甚, 또한 한토후후 한량한 약을 아무리 써도 열을 물리칠 수 없을 경우, 양감증 등에 황련해독탕을 사용하여 삼초화독을 꺾고 청열해독하는 방법이다.⁵³⁾ 清泄은 실열, 습열, 풍열, 陽極似陰 등의 경우에 清解泄熱하는 승기탕류를 사용하여 장위의 열결 응체를 풀어주는 것이며, 清利는 濕熱瘀阻, 痰飲內聚로 인해 기혈이 응체되어 宣通하지 못하는 증에 삼화신우환을 써서 邪熱이 소변을 통해 빠져나가도록 하는 방법이다.⁵⁴⁾

③ 通法⁵⁵⁾

50) 姜迎萍 外, 앞의 책 16쪽.
 51) 劉河間, 앞의 책, 『素問病機氣宜保命集·熱論』 445쪽 : “小熱之氣, 涼以和之, 大熱之氣, 寒以取之.”
 52) 姜迎萍 外, 앞의 책 16쪽.
 53) 姜迎萍 外, 앞의 책 16쪽.
 54) 姜迎萍 外, 앞의 책 16쪽.
 55) 陳大舜 外, 앞의 책. 97쪽 : “通法은 당연히 下法을 포괄하지만 완전히 동일한 것은 아니다. 그는 통법이 結滯된 데 쓰는 것이라고 명확히 말하고 있는데, ‘이론바 結했다고 하는 것은 佛鬱하여 氣液이 宣通되지 못하는 것일 뿐 대변이 맺혀 굳어져 있는 것은 아니다(『素問玄機原病式·熱類』).’ 그러므로 通法은 鬱結된 것을 開通시키는 것이다. 通法은 辛苦寒한 약을 써서 清法과 通法을

通法은 下法을 포함하며 行氣, 行血, 通泄하는 것으로 작약탕⁵⁶⁾이 대표방이다. 辛味의 약으로 행기개울하는 것이고, 행혈을 통해 행기를 도우며, 通泄을 통해 청열하게 된다.⁵⁷⁾

④ 養法

下法을 쓴 후 열이 조금 내렸음에도 병이 나지 않는 경우는 황련해독탕으로 조리해준다. 혹은 미열이 사라지지 않으면 양격산을 쓴다. 下法을 쓰지 못해서 열이 극심하여 오히려 身冷脈微하여 죽으려 하는 데는 하법을 쓰면 사람을 죽이게 되며 하법을 쓰지 않아도 그 사람은 죽는다. 이때는 양격산에 황련해독탕을 함하여 養陰退陽해야 한다. 맥이 점점 살아나고 나서야 삼일승기탕으로 약하게 下之한다. 즉 苦寒清熱하는 약으로 養陰退陽하는 법이다.⁵⁸⁾

(2) 陽氣佛鬱說과 『內經』

유완소의 주화설은 『內經』病機十九條, 「熱論」, 五運六氣說 등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⁵⁹⁾ 이의 주요이론 근거가 되는 양기불울은 현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素問玄機原病式』에서는 “女府는 氣의 出入升降의 道路門戶이다. … 經에 이르기를 出入이 廢하면 神機가 滅하고 升降이 息하면 氣立이 孤危해지니 따라서 出入이 아니면 生長壯老已할 수 없고 升降이 아니면 生長化收藏할 수 없다. 이로써 보면 升降出入은 없는 器가 없어 사람의 眼耳鼻舌身意神識이 모두 쓰임이 있는 것은 다 升降

같이 하는 것으로 大辛大熱한 약물은 금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大承氣湯, 三一承氣湯, 大柴胡湯, 茵陳蒿湯, 大陷胸丸 등이다. 만약 크게 毒한 熱性的 약으로 下하면 비록 鬱結이 開한다 하더라도 陰氣를 손상시켜 佛鬱이 다시 結할 수 있다.”
 56) 劉河間, 앞의 책, 461쪽.
 57) 姜迎萍 外, 앞의 책 16쪽.
 58) 姜迎萍 外, 앞의 책 16쪽.
 59) 李華安 外, 金元四家的學術是非說, 山東中醫學院學報, 1996. 第20卷 第1期, 7쪽 : “유완소는 『內經』의 病機十九條, 「熱論」과 五運六氣說을 밝히고 더불어 傷寒論의 方藥을 참조하여 古代的 醫經醫學과 經方醫學을 결합한 바탕 위에서 『內經』理論 爲主의 熱病學을 창립했다.”

出入의 通利로써이다. 이것이 閉塞되면 쓰임이 없어진다.”⁶⁰⁾라고 하여 현부가 모든 출입승강의 통로가 되며 현부가 막히게 되면 이로 인해 熱鬱於內하게 됨을 주장하였다.

유완소가 양기불을을 가져온 부분은 『內經』의 「生氣通天論」, 「陰陽應象大論」, 「熱論」, 「水熱穴論」, 「調經論」, 「六微旨大論」, 「六元正紀大論」, 「長刺節論」⁶¹⁾ 등이라 할 수 있다.

「生氣通天論」에는 “陽氣는 天이 日과 與함 같으니 있어야 할 자리를 잃으면 壽를 折하고 彰하지 못합니다. … 寒에 因하여 자리를 잃으면 … 晝에 依하여 자리를 잃으면 … 目이 盲하여 可히 視하지 못하고 耳가 閉하여 可히 聽하지 못하며 … 陽氣가 開闔을 얻지 못하면 寒氣가 이를 從하여”⁶²⁾라 하여 양기의 개념과 양기가 인신

에 미치는 영향 등이 잘 나타나 있다.

「陰陽應象大論」은 “腠理가 閉하고, 喘逆하여 俛仰하고, 汗이 出하지 못하여 熱하고”⁶³⁾라 하여 주리가 막힘으로 인해 양기가 울할 때의 증상을 다루었다.

「熱論」에서는 “사람이 寒에 傷하면 모두 熱病이 되니”⁶⁴⁾라 하여 상한은 열병이라 하였다.

「水熱穴論」은 “腎汗出할 때 風을 만나 안으로는 藏府에 入하지 못하고, 밖으로는 皮膚로 越하지 못하여 玄府에 客하여, 皮裏를 行하며 傳하여 附腫이 된다.”⁶⁵⁾라고 하여 외사가 현부를 빠져나가지 못하는 양상을 말하고 있다.

「調經論」에서는 “上焦가 通利하지 못하면 皮膚가 緻密하고 腠理가 閉塞되어 玄府가 不通하여 衛氣가 泄越하지 못해”⁶⁶⁾라고 하였는데 특히 調經論에서는 현부와 함께 기기승강의 통로를 경맥으로도 보아 유여부족을 따져 유여한 경우 경맥을 조절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는 유완소의 현부의 개념과 비슷한 것이다.

「六元正紀大論」은 “火鬱의 發함은 … ”⁶⁷⁾라

60) 劉河間, 앞의 책, 368쪽: “然玄府者, … 乃氣出入升降之道路門戶也. … 經曰 出入廢則神機化滅, 升降息則氣立孤危. 故非出入, 則無以生長壯老已, 非升降, 則無以生長化收藏, 是以升降出入, 無器不有, 人之眼耳鼻舌身意神識能爲用者, 皆由升降出入之通利也, 有所閉塞者, 不能爲用也.”

61) 段咏慧 外, 淺談金元四大家學術觀點與內經的淵源, 江蘇中醫 2001, 第22卷 第10期. 11쪽: “유완소는 火熱病機를 논술하면서 특히 火熱病 發生發展過程 중의 한단계인 陽氣佛鬱을 강조하였다. 그가 내놓은 陽氣佛鬱論은 『內經』에 이미 있는 說이다. 예를 들어 玉機眞藏論의 “風寒客于子, 使人毫毛華直, 皮膚閉而發熱”를 王冰은 玄府閉塞으로 인한 것으로 인식하였다. 生氣通天論, 陰陽應象大論, 「熱論」, 水熱穴論, 調經論에 모두 유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유완소의 論은 이 내용을 繼承하고 한걸음 더 나아간 것으로 그는 “陽氣佛鬱”이 본래 寒邪가 表에 있어 鬱하여 化熱하는 病變을 일으키는 데 쓰였지만 지금은 六氣의 變化, 심지어는 “上下中外, 一切佛熱鬱結”에까지 이르고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렇듯 佛鬱生熱하는 變化를 六氣病에서부터 五志所傷으로까지 확대하고 기타 內傷諸病에까지 확대한 것이 劉氏의 독특한 견해이다.”

62) 『素問·生氣通天論』第二章: “陽氣者若天與日, 失其所, 則折壽而不彰, … 因於寒, 欲如運樞, 起居如驚, 神氣乃浮. 因於暑, 汗煩則喘喝, 靜則多言, 體若燔炭, 汗出而散. 因於濕, 首如裹, 濕熱不攘, 大筋緩短, 小筋弛長, 緩短爲拘, 弛長爲痿. … 陽氣者, 煩勞則張, 精絕辟積, 於夏使人煎厥, 目盲不可以視, 耳閉不可以聽, 潰潰乎若壞都, 汨汨乎不可止. 陽氣者, 大怒則形氣絕, 而血宛於上, 使人薄厥, 有傷於筋, 縱, 其若不容, 汗出偏沮, 使人偏枯. 汗出見濕, 乃生痤癩. 高粱之變, 足生大丁, 受如持虛. 勞汗當風, 寒薄爲皴, 鬱乃痺. … 陽氣者 … 開闔不得, 寒氣從之, 乃生大僕. … 及爲驚駭 … 乃生癰腫 … 故陽畜積病死, 而陽氣當隔, 隔

者當寫 … 陰者, 藏精而起亟也, 陽者, 衛外而爲固也. 陰不勝其陽, 則脈流薄疾, 并乃狂. 陽不勝其陰, 則五臟氣爭, 九竅不通.”

63) 『素問·陰陽應象大論』第四章 第一節: “帝曰 法陰陽奈何. 岐伯曰 陽勝則身熱, 腠理閉, 喘逆爲之俛仰, 汗不出而熱, 齒乾以煩冤腹滿, 死, 能冬不能夏.”

64) 『素問·熱論』第一章: “今夫熱病者, 皆傷寒之類也, 或愈或死, 其死皆以六七日之間, 其愈皆以十日以上者, 何也. 不知其解, 願聞其故. 岐伯對曰 巨陽者, 諸陽之屬也, 其脈連於風府, 故爲諸陽主氣也. 人之傷於寒也, 則爲病熱, 熱雖甚不死, 其兩感於寒而病者, 必不免於死.”

65) 『素問·水熱穴論』第一章 第二節: “勇而勞甚, 則腎汗出, 腎汗出逢於風, 內不得入於藏府, 外不得越於皮膚, 客於玄府, 行於皮裏, 傳爲附腫, 本之於腎, 名曰風水. 所謂玄府者, 汗空也.”

66) 『素問·調經論』第五章: “陽盛生外熱, 奈何. 岐伯曰 上焦不通利, 則皮膚緻密, 腠理閉塞, 玄府不通, 衛氣不得泄越, 故外熱.”

67) 『素問·六元正紀大論』第二章 第二節: “火鬱之發, 太虛腫翳, 大明不彰, 炎火行, 大暑至, 山澤燔燎, 材木流津, 廣廈騰煙, 土浮霜齒, 止水乃減, 蔓草焦黃, 風行惑言, 濕化乃後. 故民病少氣, 瘡瘍癰腫, 脇腹胸背, 面首四支, 臍憤腫脹, 癆疢嘔逆, 瘧瘧骨痛, 節乃有動, 注下溫瘧, 腹中暴痛, 血溢流注, 精液乃少, 目赤心熱, 甚則昏悶悞慢, 善暴死. 刻終大溫, 汗濡玄府, 其乃發也. 其氣四, 動復則靜, 陽極反

하여 五鬱 중 화울을 말하고 있다.

「長刺節論」王冰次註에는 “大風이라는 病에 들어 骨節이 重하고 鬚眉가 墮하면 名曰 大風이라 하는데 肌肉을 刺함을 故로 삼아 衄을 百日동안 내는데 이는 衛氣의 佛熱을 泄하는 것이고 骨髓를 刺하여 百日간 衄을 내는데 이는 榮氣의 佛熱을 泄함이다. … 佛熱이 屏退하고 陰氣가 돌아왔기 때문이다”⁶⁸⁾라 하여 營氣衛氣의 佛鬱을 말하였다.

이상과 같이 『내경』과 『王冰次註』 곳곳에 양기 불울, 현부울색, 화울의 개념이 흩어져 있다. 이런 문장들에서 유완소 주해설의 기본이 되는 양기 불울의 개념이 도출된 것이며, 이 사실은 유완소의 저작 곳곳에 위의 문장들이 중요히 인용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히 「六元正紀大論」에 나타난 “火鬱發之”⁶⁹⁾는 陽氣佛鬱로 인한 화열병증 치법의 토대가 되는 개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⁷⁰⁾⁷¹⁾⁷²⁾

陰, 濕令乃火乃成, 華發水凝, 山川冰雪, 炤陽午澤, 佛之先兆也. 有佛之應, 而後報也, 皆觀其極, 而乃發也.”

68) 王冰次註 『素問·長刺節論』: “病大風, 骨節重 鬚眉墮 名曰 大風 刺肌肉爲故 汗出百日 泄衛氣之佛熱 刺骨髓汗出百日 泄榮氣之佛熱 凡二百日鬚眉生而止鍼 佛熱 屏退陰氣內復 故多汗出鬚眉生也.”

69) 『素問·六元正紀大論』三章 三節: “火鬱發之, 土鬱奪之, 金鬱泄之, 水鬱折之.”

70) 宋益東, 앞의 책, 9쪽: “火鬱發之는 『素問·六元正紀大論』에서 나타난다. 『內經』은 火鬱證을 세력을 따라 利導하는 治法을 제시하였다. 筆者는 “火鬱發之”를 火熱病證의 辨證論治에 중요한 의의를 가진 것으로 인식하였으며, 이를 부족하나마 살펴보고자 한다.”

71) 由風鳴, 앞의 책, 57쪽: “劉河間은 火熱病證을 치료하는 것을 자유자재로 하여, 寒涼藥을 善用하였다. 臨證에 있어서는 每번 “發散”을 염두에 두어 陽熱鬱遏證에 대해 石膏, 滑石, 甘草, 蔥, 豉 등으로 開發鬱結할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여름에 暑熱이 한창일 때는 甘草, 滑石, 蔥, 豉 등으로 發散하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 劉河間은 表裏雙解의 防風通聖散을 만들었는데 이는 表寒이 이미 化熱한 데 대해 麻黃, 荊芥를 투여하고 薄荷, 滑石, 硝黃 등으로 도와 熱邪를 外出하는데 뜻이 있다.”

72) 沈邦, 五鬱治法與臨床體會, 陝西中醫 1997年 6月, 第18卷 第6期, 257쪽: “火鬱發之에서 發은 發汗과 升擧를 포함한다. 脈理가 緊으로 閉하여 邪熱이 佛鬱하면 解表發汗하여 흩어버리고, 속으로 火鬱하면 이는 苦寒沈降之劑로 治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즉 升浮의 藥에 甘溫한 약으로 도와 性을 쫓아 치료해야 하니 東垣의 升陽散火

이 개념을 통해 유완소는 왕빙주의 “火鬱은 發之해야 하니 解表發汗하여 疏散시키는 것”⁷³⁾을 화열증의 치법으로 제시하였다.

3) 六氣皆從化火說과 『內經』

유완소는 火熱과 風, 濕, 燥, 寒 등 여러 氣의 관계를 논함에 있어 풍, 습, 조, 한 등의 氣가 병리적 변화 중에서 모두 화로 化하여 열이 생겨나게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화열은 풍, 습, 조, 한이 생겨나게 하는 원인이 된다 하였다. 이에 대해 六氣皆從化火說은 육기가 모두 化火하는 것만 강조하고 化風, 化寒, 化濕, 化燥, 化熱하는 것은 다루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⁷⁴⁾

(1) 風

風은 화열을 일으키기도 하고, 열이 심해지면 풍이 동한다.

「黃帝素問宣明論方」에서는 “風은 動하는 것이니 動은 搖이다. 風氣가 甚하면 目眩運하는 것은 風木이 王하다는 것은 金이 衰하여 制木하지 못하니 木이 生火하기 때문에 風火는 大개 熱化하여 모두 陽熱이 많기 때문이다”⁷⁵⁾, “風이란 곧 風熱病을 말함이다”⁷⁶⁾, “熱이 極하면 生風하여 熱燥鬱하게 된다”⁷⁷⁾, “風은 본래 熱을 생하니 熱을 本으로 하고 風은 標가 된다. 風을 말함은 곧 風熱病을 말하는 것이다. 熱은 심해지면 風을 생한다. 혹 熱이 微하고 風이 甚할 때는 風熱을 겸해서 治하고 風이 微하고 熱이 甚할 때는 다만 熱

湯이 곧 이것이다.”

73) 劉河間, 앞의 책, 91쪽, 王冰次註 『素問·六元正紀大論』: “火鬱發之, 解表發汗, 令其疏散.”

74) 李華安 外, 앞의 책, 8쪽: “五行的 生克乘侮 관계는 한 개의 폐쇄된 순환계통으로 運氣의 推演이 이에 근거하고 있으며, 이에 따르면 六氣는 모두 능히 化風, 化寒, 化濕, 化燥, 化熱, 化火할 수 있는데 왜 다만 “六氣皆能化火”만 옳겠는가.”

75) 劉河間, 앞의 책, 230쪽: “風者, 動也. 動者, 搖也. 所謂 風氣甚而主目眩運, 由風木王, 則是金衰不能制木, 而木能生火, 故風火多爲熱化, 皆爲陽熱多也.”

76) 같은 책, 231쪽: “言風者, 卽風熱病也.”

77) 같은 책, 232쪽: “熱極生風, 而熱燥鬱.”

만 치료하면 風은 스스로 사그러든다.”⁷⁸⁾ 라 하였다.

「素問玄機原病式」에서는 “風火는 모두 陽에 속하여 兼化하는 경우가 많다”⁷⁹⁾라 하였다.

「素問病機氣宜保命集」에서는 “肝木風疾의 病이라는 것은 熱이 본이 되고 風이 標가 되니 그러므로 火는 본래 불꽃이 일지 않는데 바람을 만나서 타오르는 것이다”⁸⁰⁾, “ 風은 본래 熱에서 생기니 熱이 본이 되고 風은 標가 된다. 風이라는 것은 곧 熱이다. 叔和가 이르기를 熱은 生風하고 冷은 生氣한다 하였으니, 熱하면 즉 風이 動한다.”⁸¹⁾이라 하였다.

이상은 『內經』“諸風掉眩, 皆屬於肝”⁸²⁾, “風勝則動”⁸³⁾에서 掉眩의 양상이 동적임을 주장하여 양열과 같은 것으로 보는 것과 동일한 이유로 풍을 화열과 같이 논한 것이다.

(2) 濕

積濕成熱의 면 외에 火生濕土라 하여 화열이 뭉쳐 수액이 잘 퍼지지 못한 것이 수습이다.

「黃帝素問宣明論方」에서는 “濕은 본래 土氣이다. 火熱은 土濕을 생할 수 있으니 따라서 여름에 더우면 만물이 潤漑해지고 가을에 서늘하면 濕이 다시 마르는 것이다. 濕病은 본래 스스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火熱의 怫鬱에 의해 水液이 宣行하지 못하고 정체되어 水濕이 생기는 것이다. 濕病은 대개 熱로부터 生하므로 熱氣가 兼證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 마땅히 濕熱이라고 해야 할 것인 즉 風熱을 이르는 것과 비슷한 뜻이다”⁸⁴⁾라 하였다.

78) 같은 책, 249쪽: “風本生熱, 以熱爲本, 風爲標, 言風者, 則風熱病也. 諸熱, 熱甚而生風, 或熱微風甚, 卽兼治風熱, 或風微熱甚, 但治其熱, 卽風自消也.”

79) 같은 책, 345쪽: “風火皆屬陽, 多爲兼化.”

80) 같은 책, 405쪽: “凡病肝木風疾者, 以熱爲本, 以風爲標, 故火本不燥, 遇風冽乃燥.”

81) 같은 책, 423쪽: “風本生於熱, 以熱爲本, 一風爲標, 凡言風者熱也. 叔和云熱則生風, 冷生氣, 是以熱則風動.”

82) 『素問·至真要大論』第五章 第一節

83) 『素問·陰陽應象大論』第一章 第四節

84) 劉河間, 앞의 책, 249, 273쪽: “諸濕, 濕本土氣, 火熱能生土濕, 故夏熱則萬物濕潤, 秋涼則濕復燥乾也, 濕病本不

이는 오행상생의 원리 중 “火生土”를 말하는 것으로, 『內經』의 내용과 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⁸⁵⁾

(3) 燥

燥邪는 쉽게 진액을 상하여 화열로 변하게 하고, 화열 또한 수액을 소모시켜 마르게 한다. 화열과 燥는 동화되는 경우가 많다.

燥와 火熱의 관계에 대해서는 “燥乾이라는 것은 金肺의 본이다. … 風은 勝濕하고 熱은 耗液하여 모두 燥를 이룬다. … 諸澀枯涸, 乾勁數揭는 모두 燥에 속한다.”⁸⁶⁾, “燥乾라는 것은 肺의 본으로써의 燥이다. 金이 熱을 받으면 化하여 燥澀하게 된다. 火熱을 겸하면 金衰, 耗液하게 되어 損血한다. 鬱하여 燥가 되는 것은 風이 勝濕하고 熱이 耗液하기 때문이다”⁸⁷⁾, “무릇 燥渴의 病은 熱을 겸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易』에 이르기를 萬物을 燥하게 하는 것은 火만한 것이 없다고 하였다”⁸⁸⁾, “燥는 火와 같다. 金이 極하면 오히려 火化를 겸하는 것이다. 따라서 血液衰한 병을 앓게 된다.”⁸⁹⁾이라 하였다.

이는 화열의 결과 진액이 말라 건조해짐을 들어 燥와 火熱의 상호관계를 설명한 것으로 주역의 문장 등을 근거로 세웠다. 『內經』의 문장을

自生, 因於火熱怫鬱, 水液不能宣行, 卽停滯而生水濕也, 凡病濕者, 多自熱生, 而熱氣尙多以爲兼證, 當云濕熱, 亦猶風熱, 義同.”

85) 『素問·陰陽應象大論』第三章: “東方生風, 風生木, 木生酸, 酸生肝, 肝生筋, 筋生心… 南方生熱, 熱生火, 火生苦, 苦生心, 心生血, 血生脾.”

86) 劉河間, 앞의 책, 249쪽: “燥乾者, 金肺之本, 肺藏氣, 以血液內損, 氣虛成風則數揭, 風能勝濕, 熱能耗液, 皆能成燥, 故經云 風熱火兼爲陽, 寒濕燥同爲陰, 又燥濕亦異也, 然燥雖屬秋陰, 而其性異於寒濕, 燥陰盛於風熱也, 故風熱甚. 而寒濕同於燥也, 然中寒吐瀉, 亡液而成燥者, 亦以此矣. 故經云 諸澀枯涸, 乾勁數揭, 皆屬於燥也.”

87) 같은 책, 288쪽: “燥乾者 今肺之本燥, 金受熱化, 以成燥澀也, 兼火熱, 致金衰耗液而損血, 鬱而成燥者, 由風能勝濕, 熱能耗液.”

88) 같은 책, 375쪽: “夫燥渴之爲病也, 多兼於熱. 故『易』曰 燥萬物者, 莫燥乎火.”

89) 같은 책, 408쪽: “故燥若火, 是金極而反兼火化也. 故病血液衰也, 燥金之化極甚, 則煩熱氣鬱, 痿弱而手足無力, 不能收持也.”

직접 인용한 것은 보이지 않는다.

(4) 寒

中寒의 경우를 제외하고 한사는 양기를 鬱塞시켜 不能宣散하여 열을 생기게 하며, 또한 열이 극심해지면 寒狀이 나타난다.

「黃帝素問宣明論方」에서는 “寒이란 上下에 生하는 水液이 澄澈淸冷하여 水穀不化한 것이 나오고 小便이 淸白不澀하며, 身涼不渴하는 등 전혀 陽熱證이 없는 것으로 脈이 遲한 것이다. 이는 冷物을 過多하게 먹고 마시거나, 陰勝陽衰하여 中寒이 된 것이며”⁹⁰⁾라 하여 寒證, 中寒症은 열증이 전혀 없는 것임을 밝혔다.

「素問玄機原病式」에서는 “戰이란 動搖하는 것으로 火의 象이다. 陽動陰靜하여 水火가 相反되니 厥逆禁固, 屈伸不便한 것은 寒이다. 慄이란 寒冷한 것이다. 어떤 사람은 寒戰을 脾寒으로 말하기도 하나 變化의 道를 모르는 것이다. 이는 心의 火熱이 甚하여 亢極해서 戰하는 것으로 오히려 水化를 兼하여 制하려고 하는 것이니 寒慄이다. 寒慄이란 火가 甚하여 水와 비슷한 것으로 실제로 寒氣를 兼한 것은 아니다”⁹¹⁾라 하여 한증으로 보이나 실제 열증인 경우를 말하고 있다.

유완소가 주장하는 한증, 중한증이란 열증이 전혀 없는 것으로, 그 외의 진열가한은 열증으로 변증해야 한다는 것이며, 그는 당시 열증을 한증으로 잘못 본 경우가 많음을 비판하였다.⁹²⁾

한사가 열화된다는 것은 『內經』의 “人之傷於

寒也, 則爲病熱”⁹³⁾를 근거로 하였으며 유완소의 설명은 “熱病이란 傷寒의 類이다. 사람이 寒에 傷하면 熱病을 앓게 되니 寒毒이 肌膚에 숨어 陽氣가 散發하지 못하고 속으로 佛結되는 것이다. 따라서 寒에 傷하면 熱病을 앓게 된다.”⁹⁴⁾, “經에서 사람이 寒에 傷하면 熱病을 앓는다고 한 것을 어찌 알겠는가. 무릇 寒邪가 皮毛를 傷하면 腠理가 閉密하고 陽氣가 佛鬱되어 通暢하지 못하니 熱하게 된다”⁹⁵⁾ 등과 같다.

이상에서 볼 때 六氣皆從化火說을 구성하는 육기 각각의 기본개념은 『內經』의 그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풍사가 열로 변하는 것, 습사가 열로 변하는 것 등은 『內經』의 문장 그대로의 뜻은 아닌 듯하다. 『內經』의 문장을 바로 끌어와 六氣化火를 주장하는 구절은 “人之傷於寒也, 則爲病熱”를 제외하고는 보이지 않는다. 즉 六氣皆從化火說은 『內經』의 기본개념을 바탕으로 하여 펼쳐낸 유완소의 독창적인 견해를 알 수 있다.

4) 五志過極皆爲熱說⁹⁶⁾과 『內經』

유완소는 「素問玄機原病式」에서 “五藏의 志는 怒喜悲思恐이다. 悲는 憂라고도 한다. 만약 志가 過度하면 勞하여 本藏을 傷하게 된다. 무릇 五志에 傷한 것은 모두 熱이다”⁹⁷⁾, “五志가 發하는 것은 모두 熱이 된다. 狂은 五志에서 모두 發하는데 다만 怒에서 발하는 것이 많다. 무릇 熱이 中을 침범하는 것은 즉 陽明胃經을 범하는 것이 많다”⁹⁸⁾, “動亂勞傷은 곧 陽火가 化한 것이고 神狂氣亂은 熱病이 되는 것이 많다”⁹⁹⁾, “情이 傷한 것

90) 같은 책, 249쪽 : “寒者, 上下所生水液, 澄澈淸冷, 穀不化, 小便淸白不澀, 身涼不渴, 本末不經有見陽熱證, 其脈遲者是也, 此因飲食冷物過多, 陰勝陽衰, 而爲中寒也, 或冷熱相併, 而反陽氣佛鬱不能宣散, 佛熱內作以成熱證者, 不可亦言爲冷, 當以熱證辨之, 夫濕熱吐瀉, 當見陽脈, 若亡液氣虛, 亦能反見諸陰脈也, 當以標本明之, 不可妄治, 或熱證誤服白朮調中湯, 溫藥亦能開發, 陽氣宣通而愈, 別無加害也.”

91) 같은 책, 356쪽 : “戰者, 動搖, 火之象也. 陽動陰靜, 而水火相反, 故厥逆禁固, 屈伸不便爲病寒也. 慄者, 寒冷也. 或言寒戰爲脾寒者, 未明變化之道也. 此由心火熱甚, 亢極而戰, 反兼水化制之, 故寒慄也. 然寒慄者, 由火甚似水, 實非兼有寒氣也.”

92) 같은 책, 355쪽. 이하 비판이 계속된다.

93) 『素問·熱論』三十一章 一節

94) 劉河間, 앞의 책, 240쪽 : “夫熱病者, 傷寒之類也, 人之傷於寒, 則爲病熱, 寒毒藏於肌膚, 陽氣不行散發, 而內爲佛結, 故傷寒者, 反病爲熱.”

95) 같은 책, 348쪽 : “豈知經言, 人之傷於寒也, 則爲病熱, 蓋寒傷皮毛, 則腠理閉密, 陽氣佛鬱, 不能通暢, 則爲熱也.”

96) 李聰甫 外, 앞의 책 10쪽.

97) 劉河間, 앞의 책, 359쪽 : “五藏之志者, 怒喜悲思恐也, 悲, 一作憂, 若志過度, 則勞傷本藏, 凡五志所傷皆熱也.”

98) 같은 책, 362쪽 : “況五志所發皆爲熱, 故狂者, 五志間發, 但怒多爾. 凡熱干中則多干陽明胃經也.”

은 모두 火熱에 속한다. 陽動陰靜하니 그러므로 形神이 勞하면 躁不寧하고 靜하면 清平하게 된다. … 六欲七情이 患이 되는 것은 火에 속한 때 문이라 하였다 … 사람이 信志를 잃으면 羞慚해지는 것은 水衰火實해지기 때문이다 … 무릇 上은 善하기가 水와 같고 下는 愚하기가 火와 같은 것이니 따라서 六欲七情은 上善을 멀리하고 下愚를 가까이하는 것이다¹⁰⁰⁾, “笑라는 것은 蕃茂, 鮮淑, 舒榮, 彰顯함이니 火의 化이다”¹⁰¹⁾ 라고 하여 정지상은 모두 열증임을 분명히 하였다.

오랫동안 정지상이 풀리지 않고 있으면 기기가 울체되어 열증이 되는 것이다.¹⁰²⁾ 水는 靜하기 쉽고 火는 動하기 쉬운데, 水가 靜하면 平하지만 火가 動하면 혼란해져서 水의 제약을 얻지 못해 열증이 일어나므로 따라서 정지상을 다스리는 법은 養腎水以制心火¹⁰³⁾하는 것이다.

또한 유완소는 증풍이 외인으로 인한 것 보다는 정지상의 결과인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그는 「素問玄機原病式」에서 “사람이 風病을 앓는 것은 대개 熱甚하여 風燥한 경우가 많다. 이는 兼化한 것으로 熱이 爲主가 된다. … 中風癱瘓은 … 將

息失宜로 인하여 心火가 暴甚한데 腎水가 虛衰하여 制하지 못하여 陰虛陽實하고 熱氣佛鬱하여 心神昏冒, 筋骨不用하여 갑자기 쓰러져 아무것도 모르게 되는 것이다. 喜怒思悲恐의 五志가 過極하여 卒中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은 五志過極이 모두 熱甚한 까닭이다”¹⁰⁴⁾라고 하여 증풍은 열증으로, 정지과극으로 인해 풍병이 발생함을 주장했다.

五志過極皆爲熱說의 『內經』근거로는 오지과극으로 인해 나타난 ‘罵詈驚駭, 疔腫疼酸, 氣逆衝上, 譫妄, 禁慄如喪神守’ 등이 『內經』에서 제시하는 火의 用, 혹은 양명열증임을 설명하였다. 『內經』「厥論篇」의 “陽明의 厥은, 癲疾하여 走하며 呼하고 자 하고, 腹이 脹滿하여 臥하지 못하며, 面赤하면서 熱하여 妄見妄言합니다.”¹⁰⁵⁾ 「脈解篇」의 “陽明의, 酒酒히 振寒한다고 이른 것은, … 脛이 腫하고 股를 收하지 못하며 … 人과 火를 惡하며 木音을 聞하면 惕然히 驚한다. … 病이 至하면 높은 데에 올라가 노래하고 옷을 버리고 走하려고 한다.”¹⁰⁶⁾ 「五運行大論篇」의 “南方은 熱을 生하고, 熱은 火를 生하고, … 藏에 있어서는 心이 되며 … 그 用은 燥가 되고”¹⁰⁷⁾ 등이 양명열증이 곧 정지상의 병증임을 설명하는 문장들이다. 五志過極皆爲熱說 또한 『內經』의 기본개념을 한층 발전시킨 결과 나온 유완소의 독창적인 견해이며, 유완소는 “그러므로 經에 이르기를 戰慄, 驚惑, 悲笑, 譫妄, 歌唱, 罵詈, 癲狂은 모두 熱病이라 하였다”¹⁰⁸⁾라고 하여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였다.

99) 같은 책, 366쪽: “然所謂動亂勞傷, 乃爲陽火之化, 神狂氣亂, 而爲病熱者多矣.”

100) 같은 책, 359쪽: “情之所傷則皆屬火熱, 所謂陽動陰靜, 故形神勞則躁不寧, 靜則清平也. … 先聖曰 六欲七情爲道之患, 屬火故也. … 人失信志則羞慚者, 水衰火實故也 … 夫上善若水, 下愚如火, 故六欲七情, 上善遠之, 而下愚遷之.”

101) 같은 책, 359쪽: “笑, 蕃茂, 鮮淑, 舒榮, 彰顯, 火之化也.”

102) 李聰甫 外, 앞의 책 10쪽: “思悲恐이 化火함에 있어 중간조건은 무엇인가? 當然히 病이 오랫동안 낫지 않아서 氣機鬱滯한 것이다. 化熱의 내재소인은 무엇인가? 完素는 이를 밝혀 “將息失宜하여 心火暴甚한데 腎水가 虛衰하여 이를 制하지 못하면 즉 陰虛陽實하여 熱氣佛鬱하게 된다. 五志過極으로 인해 모두 熱甚한 때문이다. 心腎으로 말하는 것은 心은 火에 속하고 腎은 水에 속하기 때문이다. 모든 動亂勞傷하는 것은 陽火의 化한 것으로 一水는 五火를 制하지 못하니, 心火는 旺하기 쉽고 腎水는 衰하기 쉽기 때문이다. 治는 마땅히 腎水を 길러 心火를 制하는 것이니, 心이 清하면 熱이 스스로 편안해지니 또한 王太僕의 ‘壯水之主以制陽光’의 논점이다.”고 하였다.”

103) 李聰甫 外, 앞의 책 10쪽: “곧 王冰의 “壯水之主以制陽光”이다.”

104) 劉河間, 앞의 책, 370쪽: “凡人風病, 多因熱甚而風燥者, 爲其兼化以熱爲其主也. 俗云風者言末而忘其本也, 所以中風癱瘓者, 非謂肝木之風實甚而卒中也. 亦非外中於風爾, 由於將息失宜, 而心火暴甚腎水虛衰不能制之, 則陰虛陽實而熱氣佛鬱, 心神昏冒, 筋骨不用而卒倒無所知也. 多因喜怒思悲恐之五志有所過極而卒中者, 由五志過極皆爲熱甚故也.”

105) 『素問·厥論』第二章: “陽明之厥, 則癲疾欲走呼, 脹滿不得臥, 面赤而熱, 妄見而妄言.”

106) 『素問·脈解篇』第三章: “陽明所謂酒酒振寒者 … 脛腫而股不收 … 惡人與火, 聞木音則惕然而驚 … 病至則欲乘高而歌, 棄衣而走.”

107) 『素問·五運行大論』第五章 第三節: “南方生熱, 熱生火 … 在臟爲心 … 其用爲躁.”

「素問玄機原病式」에서는 “그러므로 心火熱이 甚하면 腎水가 衰하여 志가 精一하지 못하고”¹⁰⁹⁾ “水火가 相反하니 그러므로 心火가 旺하면 腎水는 衰하게 된다”¹¹⁰⁾라 하였고 또한 「素問病機氣宜保命集」에서는 “무릇 모든 熱에 속하는 것들은 心火의 象이다”¹¹¹⁾라고도 하였다. 이는 열병에 대한 설명이기는 하지만, 心에서부터 나타나는 정지 또한 모두 심화의 형상을 가진 것이므로 정지상은 곧 열증이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정지를 수화의 측면으로 살펴 降心火益腎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곧 왕빙의 「壯水之主以制陽光」¹¹²⁾과도 통해있는 것이다.

5) 五運六氣說과 『內經』

『內經』에서는 “天에는 四時五行이 있어서, 生長收藏하고, 寒暑燥濕風을 生하며 人에는 五藏이 化하는 五氣가 있어 喜怒哀憂恐을 生한다.”¹¹³⁾라 하여 천인상응을 말하고 있는데 유완소 또한 천인상응의 관점에서 인체의 생리병리가 자연계의 변화에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인식하였다. 따라서 “經에 이르기를 治함에 天紀地理를 본받지 않으면 災害가 이른다 하였다. 또 이르기를 年의 加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氣의 盛衰, 虛實의 일어나는 바를 알지 못하면 의사가 될 수 없다 하였다. 이로써 보면 運氣를 알지 못하고 醫를 구함에 빠짐없이 하는 者 드물 것이다”¹¹⁴⁾라 하여

의학의 연구에서도 자연계의 변화를 소홀히 할 수 없으며 인체의 모든 변화를 자연의 변화와 연관지어 생각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유완소는 인체질병이 완전히 자연의 기후에 지배받는다는 관점에는 반대하고, 당시 연구자들이 주장한 운기의 기계적인 추산방법을 비판했다. 즉 인체 자체의 내재적인 조건 또한 중시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따라서 유완소는 「至眞要大論」 왕빙주의 “帝 이르기를 善하도다! 寒을 복용하되 오히려 熱하고 熱을 복용하되 오히려 寒한 것은 어떠한가? … 왕성한 기운을 觸하면 그 用을 강하게 합니다. 무릇 肝氣溫和하고 心氣暑熱하고 … 春에는 淸으로 治肝하여도 오히려 溫하고 … 王한 氣를 補하는 것이 太甚하면 藏의 寒熱氣가 스스로 多하게 됩니다”¹¹⁵⁾ 부분을 들어서 장부에는 각각 본기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며, 운기의 변화에 영향을 받을 경우 허실에 따라 장부의 기가 다르게 나타난다고 하였다.¹¹⁶⁾ “肺는 본래 淸한데, 虛하면 溫하고, 心은 본래 熱한데, 虛하면 寒하고, 肝은 본래 溫한데, 虛하면 淸하고, 脾는 본래 濕한데 虛하면 燥하고, 腎은 본래 寒한데, 虛하면 熱하고”¹¹⁷⁾라 하여 왕빙주에 허실의 개념까지 더해 허할 경우 本氣와 반대로 표현되고 실할 경우 본기가 그대로 나타남을 말하고¹¹⁸⁾, 따라서 오운육기와 인체장부를 연결시켜서 장부의 온정한열에 따라 허실을 관찰해야 한다고 하였다.¹¹⁹⁾ 이것은

108) 劉河間, 앞의 책, 359쪽. (실제 이 문장은 『內經』에 보이지 않음): “故經曰, 戰慄, 驚惑, 悲笑, 譫妄, 歌唱, 罵詈, 癡狂, 皆爲熱病也.”

109) 같은 책, 360쪽: “故心火熱甚, 則腎水衰而志不精一.”

110) 같은 책, 362쪽: “水火相反, 故心火旺則腎水衰.”

111) 같은 책, 445쪽: “蓋諸熱之屬者, 心火之象也. 王注曰 百端之起皆自心生, 故上善若水, 下惡若火, 治法曰 少熱之氣涼以和之, 大熱之氣寒以取之, 甚熱之氣則汗發之, 發之不盡則逆治之, 治之不盡求其屬以衰之 … 王注曰, 益火之源, 以消陰翳, 壯水之主, 以制陽光, 此之謂也.”

112) 王冰次註「至眞要大論」

113) 「素問-陰陽應象大論」第二章 第五節: “天有四時五行, 以生長收藏, 以生寒暑燥濕風. 人有五臟, 化五氣, 以生喜怒哀憂恐.”

114) 劉河間, 앞의 책, 336쪽: “經曰治不法天之紀, 地之理, 則災害至矣. 又云不知年之所加, 氣之盛衰, 虛實之所起, 不可以爲工矣. 由是觀之, 則不知運氣而求醫無失者鮮矣.”

115) 王冰次註「至眞要大論」: “帝曰 善 服寒而反熱 服熱而反寒 其故何也 岐伯曰 治其王氣, 是以反也. 物體有寒熱, 氣性有陰陽, 觸王之氣則強其用也. 夫肝氣溫和, 心氣暑熱, 肺氣淸涼, 腎氣寒冽, 脾氣兼并之故也. 春以淸治肝而反溫, 夏以冷治心而反熱, 秋以溫治肺而反淸, 冬以熱治腎而反寒, 蓋由補益王氣太甚也 補王太甚則藏之寒熱氣自多矣.”

116) 嚴世藝 主編, 앞의 책, 254쪽.

117) 劉河間, 앞의 책, 639쪽: “肺本淸, 虛則溫, 心本熱, 虛則寒, 肝本溫, 虛則淸, 脾本濕, 虛則燥, 腎本寒, 虛則熱.”

118) 嚴世藝 主編, 앞의 책, 255쪽: “例 潤濕한 氣는 脾土의 本氣로 實하면 濕邪가 심하고 虛하면 津液이 말라 위에서 논한 여러 증상이 생긴다. 治療에 있어서는 脾土 本氣가 지나치게 實한 경우에는 마땅히 溫燥藥으로 濕을 없애서 脾土의 過甚한 氣를 瀉해야 한다. 脾土 本氣가 虛衰한 경우에는 마땅히 寒藥으로 補陰潤燥하여 脾土의 虛衰한 氣를 補해야 한다.”

外邪六淫의 사기가 체내에 침입한 것이 아니라 외사의 영향을 받아 체내의 육기가 반응한 것이며, 또한 장부분기의 흥쇠는 오행의 생극관계에 의해 타 장부에도 영향을 미쳐서 질병을 유발하게 된다.

예를 들면 중풍의 경우 심화가 暴甚해져서 水가 이를 제어하지 못하면 火가 金을 극하고, 金은 木을 극하지 못해 肝木이 왕성하여 火熱을 더욱 조장하여 중풍이 발생하는 등이다.¹²⁰⁾

따라서 장부는 운기의 영향만이 아니라, 운기에 따른 本氣의 흥쇠, 장부간 상생상극관계에 의해서도 발병하게 되는 것이다.

6) 亢害承制說과 『內經』

항해승제 이론은 운기에서 나온 것이다. 오운 육기가 평형을 유지하는 과정을 뜻하는 것으로 “봄에 風木이 旺하여 風이 많으니 風이 大하면 도리어 서늘해지는데 이는 金化를 兼하여 木을 制한 것이다. 매우 서늘한 후에 天氣가 도리어 溫한 것은 火가 化하여 金을 承한 것이다. 여름에 火熱이 極할 때 木이 도리어 液이 나오는 것은 水가 化하여 火를 制한 것이다”¹²¹⁾ 등의 내용이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기후는 태과 불급에 이르지 않고 적절히 조절되며 만물은 生化不息하게 된다. 인체 장부 또한 동일한 과정을 거치면서 최대한 정상상태를 유지하려고 한다. 이런 관계가 파괴될 경우, 한 기가 편승하는데 다른 기가 제약하지 못하면 병변이 발생하게 된다.

일반적인 경우 水가 많으면 차고 火가 많으면 더운 상황이 발생한다. 그러나 어떤 경우 질병의 본질과 증상이 일치하지 않기도 하는데, 예를 들면 열이 극심하면 오한전율의 寒狀이 나타나고 風이 극심하면 筋脈拘急의 金狀이 나타나는 등이

다. 이런 경우가 바로 『내경』에서 말하는 ‘亢則害 承乃制’이며 이는 결국 질병의 가상으로, 질병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밝히는 데 중요한 요소이다.¹²²⁾

유완소는 『素問·六微旨大論』의 “亢則害, 承乃制”를 저술 곳곳에서 인용하여 병증을 파악하는 원리, 치료법으로 삼고 있다. “萬事는 過해서는 안되니, 太過하면 반드시 勝己하는 것이 있어 이어서 制하게 된다. 그러므로 經에 이르기를 亢則害, 承乃制라 하였다. 制하면 生化하여 겉으로 盛衰가 列하고, 害하면 敗亂하여 生化가 크게 병들게 된다.”¹²³⁾ “素問에 亢則害 承乃制라 하는 것은 亢하여 過極해지면 오히려 스스로를 勝하는 것을 兼하여 甚함을 制하는 것을 이룸이다”¹²⁴⁾라 하여 자연계가 태과불급에 이르지 않고 평형을 유지하는 기전이 항해승제라 하였으며 병증의 본질은 실제 병증의 겉보기와 다를 경우가 많으며, 본질을 파악하는데 항해승제이론이 중요한 역할을 함을 강조하였다.¹²⁵⁾ 또한 치법에도 항해승제 원리를 역이용하여 “治하는 것은 犯한 바를 구하여 所勝으로써 制하는 것이다”¹²⁶⁾라고 하였다.

7) 雜病과 『內經』

유완소는 『내경』에서 잡병의 證治 연구를 중시했다. 『소문』 『영추』에는 대략 100여종의 잡병에 관한 논술이 있는데 오히려 병증에 대한 구체적인 치방과 치법은 상세하지가 않아 湯液醪醴, 生鐵落飲 등 13방만이 기록되어 있다. 유완소는 풍부한 임상경험과 『내경』 연구를 근거로 「黃帝素問宣明論方」 1, 2권을 지어 『소문』 중 61종의 잡병을 모아 분별하고 병증에 대한 해설과 함께

122) 陳大舜 外, 앞의 책, 102쪽.

123) 劉河間, 앞의 책, 91쪽, 『素問·六微旨大論』第二章 第一節: “然萬事不可過, 太過者必有勝己者來承而制之也. 故經曰, 亢則害, 承乃制. 制則生化, 外列盛衰, 害則敗亂, 生化大病.”

124) 같은 책, 296쪽: “素問亢則害, 承乃制, 謂亢過極, 而反兼勝己之化, 制其甚也.”

125) 陳大舜 外, 앞의 책, 102쪽.

126) 劉河間, 앞의 책, 174쪽: “其治者, 求其所犯, 而以其所勝制之.”

119) 陳大舜 外, 앞의 책, 99쪽.

120) 劉河間, 앞의 책, 359쪽: “中風偏枯者, 由心火暴甚, 而水衰不能制之, 則火能剋金, 金不能剋木, 則肝木自甚. 而兼於火熱, 則卒暴偏仆.”

121) 같은 책, 376쪽: “春木旺而多風, 風大則反涼, 是反兼金化制其木也. 大涼之下, 天氣反溫, 乃火化承於金也, 夏火熱極而體反出液, 是反兼水化制其火也.”

처방을 제시했다.¹²⁷⁾ 또한 나머지 권에는 십여문에 걸쳐 『내경』의 잡병증치를 나열하고 임상경험을 결합하여 적합한 처방을 배열하였다. 이러한 작업은 유완소 이전에는 없었으며 후세 의가들에게도 영향을 주어 송대의 駱龍吉, 명대의 劉浴德, 朱練 등은 『內經』의 잡병증치에 대한 책을 짓기도 했다. 유완소는 만년에 「素問病機氣宜保命集」을 지어 오로지 잡병만을 다루었는데 23론에 이론에서부터 실제에 이르기까지 잡병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기록해놓았다.¹²⁸⁾

「素問玄機原病式」에는 瘧疾¹²⁹⁾, 耳鳴¹³⁰⁾, 骨痠¹³¹⁾, 厥證¹³²⁾, 偏枯¹³³⁾, 慮癢¹³⁴⁾, 疝症¹³⁵⁾, 疝瘕白蠱¹³⁶⁾, 中滿¹³⁷⁾ 등의 證이 있고 「黃帝素問宣明論方」에는 煎厥 薄厥¹³⁸⁾ 飧泄 脹脹¹³⁹⁾ 風消 心掣 風厥 結陽¹⁴⁰⁾ 厥疝¹⁴¹⁾ 結陰¹⁴²⁾ 解休 胃疸¹⁴³⁾ 蠱病 瘰癧¹⁴⁴⁾ 勞風¹⁴⁵⁾ 痺氣 骨痺 肉苛¹⁴⁶⁾ 肺消 涌水 膈消 口糜 慮癢 食休 鼻淵 衄衄¹⁴⁷⁾ 鼓脹 血枯 伏梁¹⁴⁸⁾ 瘕俳¹⁴⁹⁾ 厥逆¹⁵⁰⁾ 風成寒熱¹⁵¹⁾ 風成寒中 風

成熱中 腦風 首風 漏風 胃風¹⁵²⁾ 行痺 痛痺 着痺¹⁵³⁾ 周痺¹⁵⁴⁾ 胞痺 腸痺 熱痺¹⁵⁵⁾ 白淫¹⁵⁶⁾ 胃脘癰 陽厥¹⁵⁷⁾ 息積 疹筋 厥逆頭疼 膽痺¹⁵⁸⁾ 濡泄¹⁵⁹⁾ 驚泄¹⁶⁰⁾ 三焦約¹⁶¹⁾ 胃寒腸熱 胃熱腸寒¹⁶²⁾ 控羣¹⁶³⁾ 陰疝¹⁶⁴⁾ 諸痺¹⁶⁵⁾ 心疝¹⁶⁶⁾ 등이 있다. 「소문병기기의보명집」에는 痿易¹⁶⁷⁾ 瘰¹⁶⁸⁾ 飧泄 脹脹¹⁶⁹⁾ 脹病¹⁷⁰⁾ 水脹病¹⁷¹⁾ 癰腫¹⁷²⁾ 疝瘕¹⁷³⁾ 風消 消渴¹⁷⁴⁾ 등이 기록되어 있다. 대개의 경우 『內經』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고 적절한 처방을 제시하였다. 잡병의 치료 또한 『內經』의 원칙을 따르고 있으며 이는 아래 치료원칙 부분에서 같이 논할 것이다. 잡병은 부록에 따로 정리하였다.

3. 劉完素의 치병원칙과 『內經』

유완소는 당시 사람들이 변증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잘못된 치료를 하는 것을 안타까워하였다. 그는 「황제소문선명론방」 「소문현기원병식」

127) 陳大舜 外, 앞의 책 103쪽 : 煎厥 薄厥 飧泄 脹脹 風消 心掣 風厥 結陽 厥疝 結陰 解休 胃疸 蠱病 瘰癧 勞風 痺氣 骨痺 肉苛 肺消 涌水 膈消 口糜 慮癢 食休 鼻淵 衄衄 鼓脹 血枯 伏梁 瘕俳 厥逆 風成寒熱 風成寒中 風成熱中 腦風 首風 漏風 胃風 行痺 痛痺 着痺 周痺 胞痺 腸痺 熱痺 白淫 胃脘癰 陽厥 息積 疹筋 厥逆頭疼 膽痺 濡泄 三焦約 胃寒腸熱 胃熱腸寒 控羣 陰疝 諸痺 心疝
128) 陳大舜 外, 앞의 책 102쪽.
129) 『素問·瘧論』357, 358, 378쪽. (이하 페이지는 河間醫集)
130) 『素問·脈解論』364쪽.
131) 『素問·痿論』364쪽.
132) 『素問·解精微論』369쪽.
133) 『素問·生氣通天論』370쪽.
134) 『素問·氣厥論』376쪽.
135) 王永次註 『素問·大奇論』376쪽.
136) 『素問·玉機真藏論』377쪽.
137) 『素問·陰陽應象大論』353쪽.
138) 以上 『素問·生氣通天論』202쪽.
139) 以上 『素問·陰陽應象大論』203쪽.
140) 以上 『素問·陰陽別論』204쪽.
141) 以上 『素問·五藏生成論』205쪽.
142) 以上 『素問·陰陽別論』205쪽.
143) 以上 『素問·平人氣象論』206쪽.
144) 以上 『素問·玉機真藏論』207쪽.
145) 『素問·評熱病論』207쪽.
146) 以上 『素問·逆調論』208쪽.
147) 以上 『素問·氣厥論』209쪽.
148) 以上 『素問·腹中論』212쪽.

149) 『素問·脈解論』214쪽.
150) 『素問·腹中論』215쪽.
151) 『素問·脈要精微論』215쪽.
152) 以上 『素問·風論』216쪽.
153) 以上 『素問·痺論』219쪽.
154) 『靈樞·周痺』220쪽.
155) 以上 『素問·痺論』221쪽.
156) 『素問·痿論』222쪽.
157) 以上 『素問·病能論』223쪽.
158) 以上 『素問·奇病論』223쪽.
159) 『素問·六元正紀大論』225쪽.
160) 『素問·氣交變大論』225쪽.
161) 『素問·宣明五氣論』(실제 『宣明五氣論』에 보이지 않음) 226쪽.
162) 以上 『素問·五臟別論』(실제 『五臟別論』에 보이지 않음) 226쪽.
163) 『素問·至真要大論』227쪽.
164) 『素問·至真要大論』(실제 『至真要大論』에는 “丈夫癰疝”으로 나와있음) 227쪽.
165) 『素問·痺論』228쪽.
166) 『素問·脈要精微論』228쪽.
167) 『素問·陰陽別論』(실제 原文은 “三陽三陰發病, 爲偏枯痿易”로 나와있음) 410쪽.
168) 『素問·玉機真藏論』410쪽.
169) 以上 『素問·陰陽應象大論』412, 420쪽.
170) 『靈樞·脹論』481쪽.
171) 『靈樞·水脹』481쪽.
172) 『素問·生氣通天論』488쪽.
173) 『素問·玉機真藏論』503쪽.
174) 以上 『素問·陰陽別論』503, 479쪽.

등에서 이를 지적하였으며 변증하는 방법과 함께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치료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런 유완소의 주장을 일부 살펴보겠다.

「황제소문선명론방」의 “血이 흐르지 않고 滯하여 속에서 凝하여 痲가 된다. … 세상에 冷病이라 전하나 실은 痲病에도 또한 熱이 있다. 或 陽氣鬱結로 佛熱壅滯하여 堅硬한 것이 사라지지 않는 것을 세상에서는 寒癥痲라 한다. … 어찌 脈으로 辨하지 않는가. 무릇 疾病에 모두 陰陽寒熱이 있으니 마땅히 미루어 살펴야 한다.”¹⁷⁵⁾나 「소문현기원병식」의 “痲는 … 血이 흐르지 않고 寒이 薄하여 속으로 流하여 痲가 된다하였다. 一云 腹內에 結한 病이라 한다. 經에 이르기를 … 痲病에 熱證도 있다 하였다. … 마땅히 脈證으로 別하여야 한다”¹⁷⁶⁾는 痲에 대한 유완소의 견해와 치료방향을 제시하는 문장으로, 대개 痲를 냉증으로 알고 있으나 양기가 울결되어 壅滯, 堅硬不消하는 열증도 있으므로 항상 맥증을 잘 살펴야 한다는 내용이다.

「황제소문선명론방」의 “무릇 治痛하는 것은 먼저 本을 살피고 다음으로 經絡皮部虛實을 밝혀 用藥해야 잘못이 없다”¹⁷⁷⁾는 통증을 보는 시각과 함께 근본을 살피고 그 후 경락피부허실을 살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175) 劉河間, 앞의 책, 263쪽 : “血不流而滯, 故血內凝而乃痲也. 小腸移熱於大腸, 乃爲虛痲. 大腸移熱於小腸, 謂兩熱相搏則血溢而爲伏痲. 血澀不利, 月事沈滯, 而不行, 故行爲虛痲, 爲虛與伏同, 痲與疝同, 爲傳寫誤也. 世傳冷病, 然痲病亦有熱, 或陽氣鬱結, 佛熱壅滯, 而堅硬不消者, 世傳爲寒癥痲也. 或堅痞腹滿急痛(寒主筋縮故急主痛), 寒極血凝泣, 而反兼土化制之, 故堅痞之腹滿, 或熱鬱於內, 而腹滿堅結, 痛不可忍者, 皆可爲寒, 誤矣誤矣. 何不以脈辨之. 凡諸疾病皆有陰陽寒熱, 宜推詳之.”

176) 같은 책, 376쪽 : “痲, 腹中雖硬, 而忽聚忽散, 無有常準. 故聖惠方云 痲, 猶假也, 以其病痲未成痲也. 經注曰 血不流而寒薄, 故血內流而成痲也. 一云 腹內結病也. 經曰 小腸移熱於大腸, 爲虛痲, 爲沈. 注曰 小腸熱已移入大腸, 而熱相搏, 則血溢而爲伏痲也. 血澀不利, 則月事沈滯而不行. 故云 虛痲爲沈, 虛與伏同假, 一爲疝, 傳寫誤也. 然則經言痲病亦有熱者也. 或陽氣鬱結, 佛熱壅滯, 而堅硬不消者, 非寒癥痲也, 宜以脈證別之.”

177) 같은 책, 309쪽 : “但痛癢瘡癰癩腫血聚者, 皆屬心火熱也, 不可一例傷寒, 凡治痛者, 先察本, 次明經絡皮部虛實, 用藥無誤矣.”

「素問玄機原病式」의 “吐下霍亂은 … 火性이 燥動한 때문이다. 或은 이르기를 熱證에는 吐瀉가 없고 모두 寒證만 있다고 한 것은 잘못이다. 大法에 吐瀉하는데 煩渴이 있으면 熱이고 不渴은 寒이라 하였다. … 다만 寒證은 脈이 마땅히 沈細遲할 것이고 熱證은 脈이 마땅히 實大數할 것이다. 或 損氣亡液이 심하면 脈이 實數하지 않고 오히려 弱緩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하더라도 이는 熱이다”¹⁷⁸⁾는 문장은, 吐下霍亂은 한증 외에 열증도 있으므로 갈증의 유무, 맥의 양상 등을 살펴야 한다는 내용이다.

帶下를 설명하면서 “白帶下는 寒이라고 한 것은 잘못이다. … 赤白은 下痢와 뜻이 같으며 寒證이 없는 것이다. 大法에 頭目昏眩, 口苦舌乾, 咽隘不利, 小便赤澀, 大便秘滯하며 脈實數한 것은 모두 熱證이라 하였다”¹⁷⁹⁾라 하여 대하가 열증임을 주장하였다.

水腫에 대해 “或 이르기를 水腫이란 脾土衰虛로 인하여 腎水를 制하지 못하여 水氣가 妄行하는 것이라 하였다. … 經에 이르기를 諸濕腫滿은 모두 脾土에 속한다 하였다. … 太陰脾土의 濕氣가 아주 實함을 이르는 것이다. 또한 經에 이르기를 諸腹脹大는 모두 熱에 속한다 하였고 또한 諸附腫, 疼酸驚駭는 모두 火에 속한다 하였으며 熱勝하면 附腫한다 하였으니 모두 心火의 實熱을 이르는 것으로 … 水腫이라는 것은 濕熱이 相兼한 것이다.”¹⁸⁰⁾라 했는데, 이 문장은 수증이 비토가

178) 같은 책, 349쪽 : “吐下霍亂, 三焦爲傳化之道路, 熱氣甚則傳化失常, 而吐瀉霍亂, 火性燥動故也. 或云熱無吐瀉, 止是停寒者, 誤也. 大法, 吐瀉, 煩渴爲熱, 不渴爲寒, 或熱吐瀉始得之, 亦有不渴者, 若不止, 則亡液, 而後必渴, 或寒本不渴, 若亡津液過多, 則亦燥而渴也. 但寒者脈當沈細而遲, 熱者脈當實大而數, 或損氣亡液過極, 則脈亦不能實數, 而反弱緩, 雖爾, 亦爲熱矣.”

179) 같은 책, 350쪽 : “白帶下爲寒者, 誤矣. 所謂帶下者, 任脈之病也. 經曰 任脈者, 起於中極之下, 以上毛際, 循腹裏, 上關元, 至咽喉, 上頤, 循面入目, 絡舌. 任脈自胞上過帶脈, 貫臍而上, 然其病所發, 正在過帶脈之分, 而淋瀝以下, 故曰帶下也. 赤白與下痢義同而無寒者也, 大法頭目昏眩, 口苦舌乾, 咽隘不利, 小便赤澀, 大便秘滯, 脈實而數者, 皆熱證也.”

180) 같은 책, 352쪽 : “或云水腫者, 由脾土衰虛, 而不能制其腎水, 則水氣妄行. 而脾主四支, 故水氣遊走, 四支身面

허하여 신수를 제어하지 못해 생긴 결과라는 데에 반대하여 태음비토가 실하여 습열이 승한 결과 수종이 생김을 말하는 것이다.

「소문현기원병식」에서는 또한 “鼻窒은 막히는 것이다. 火는 臍腫脹을 주하니 熱이 陽明에 속하여 鼻中이 臍脹한 즉 막히는 것이다. … 무릇 陽氣가 위에서 甚하니 側臥하면 上竅가 트이고 下竅가 막히는 것은 陽明脈이 左右가 교차하여 左脈은 右竅로 注하고 右脈은 左竅로 注하기 때 문이다”¹⁸¹⁾라 하여 코막힘이 한증이 아니라 열이 양명에 속한 결과임을 주장하기도 한다.

身熱惡寒에 대해 “身熱惡寒은 熱이 表에 있는 것으로 邪가 表에 있되 淺하여 正氣를 두려워하니 熱病이지만 오히려 惡寒하는 것이다. … 仲景法에 이르기를 無陽하고 寒에 病들 때는 發汗하지 말라 하였고 또한 身熱惡寒은 麻黃湯으로 汗을 내어 汗과 같이 熱이 나가면 몸이 식고 병이 낫는다 하였다. 이런 즉 어찌 寒證이겠는가”¹⁸²⁾라 하여 중경의 법 중에 마황탕을 쓰고 나면 汗이 나고 열이 내려 몸이 식으면서 낫는다는 내용을 들어 신열오한은 열증임을 주장하였다.

“目昧不明, 目赤腫痛, 翳膜皆瘍은 모두 熱이다. 目瞑을 세속에서는 眼黑이라 하는데 이 또한

熱이다. 或 희기만 해서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것은 熱氣가 심하게 鬱한 것이다. … 經에서 熱甚하여 目瞑眼黑하다고 말한 것을 모른 것이니 … 『正理』에서는 熱甚하여 目에 佛鬱하여 그렇게 된 것이라 하였다”¹⁸³⁾라 하여 눈병이 간신히 랑한 결과라는 것은 잘못임을 밝히고 『內經』 『仲景』 『正理』를 들어 눈병이 열증임을 주장하였다.

위와 같이 유완소는 실제 병증에 대해 명확한 견해를 가지고 있었으며, 전체적인 증상 맥, 『內經』이나 『仲景』의 이치 등을 살펴 정확히 변증하는 것이 중요함을 끝없이 강조하고 있다. 위의 견해들을 토대로 유완소는 자신만의 치료원칙을 세우게 되는데 이는 『소문』의 다음과 같은 문장에 근거한 것이다.

「至眞要大論」의 “帝 가라사대 무엇을 逆從이라 이르는가. 岐伯이 가로되, 逆이란 正治이고, 從이란 反治인데, 藥物의 적음을 從하고 많음을 從함은 그 事를 觀합니다. 帝 가라사대, 反治란 무엇인가. … 病의 中外는 어떻게 하는가. 岐伯이 가로되, 內로부터 外로 之한 者는 그 內를 調하고, 外로부터 內로 之한 者는 그 外를 治하며 … 中과 外가 서로 及하지 않았으면, 主病을 治합니다.”¹⁸⁴⁾, 「五常政大論」의 “그러므로 가로되, 上下를 補하는 者는 이를 從하고, 上下를 治하는 者는 이를 逆하니, 寒熱盛衰의 所在에 따라 이를

俱腫者, 似是而實非也, 夫治水腫腹脹, 以辛苦寒藥爲君, 而大利其大小便也. 經曰 中滿者治之於內, 然則豈爲脾土之虛也. 此說與『素問』相反. 經曰 諸濕腫滿, 皆屬脾土. 又云 太陰所主附腫. 又云 濕勝則濡泄, 甚則水閉附腫. 皆所謂太陰脾土濕氣之實甚也. 又經曰 諸腹脹大, 皆屬於熱. 又云 諸附腫, 疼酸驚駭, 皆屬於火. 又曰 熱勝則附腫. 皆所謂心火實熱, 而安得言脾虛不能制腎水之實甚乎, 故諸水腫者, 濕熱之相兼也, 如六月濕熱太甚, 而庶物隆盛, 水腫之象明可見矣.”

181) 같은 책, 354쪽 : “鼻窒, 窒塞也. 火主臍腫脹, 故熱客陽明, 而鼻中臍脹則窒塞也, 或謂寒主閉藏, 妄以鼻窒爲寒者, 誤也. 蓋陽氣甚於上, 而側臥則上竅通利而下竅閉塞者, 謂陽明之脈, 左右相交, 而左脈注於右竅, 右脈注於左竅. 故風熱鬱結, 病偏於左, 則右竅反塞之也. 俗不知陽明之脈左右相交, 注於鼻孔, 但見側臥則上竅通利下竅窒塞, 反疑爲寒爾, 所以否泰之道者, 象其肺金之盈縮也.”

182) 같은 책, 355쪽 : “身熱惡寒, 此熱在表也, 邪在表而淺, 邪畏其正, 故病熱而反惡寒也, 或言惡寒爲寒在表, 或言身熱惡寒爲熱在皮膚寒在骨髓者, 皆誤也. 仲景法曰 無陽病寒, 不可發汗, 又言 身熱惡寒, 麻黃湯汗之, 汗泄熱去, 身涼即愈. 然則豈有寒者歟.”

183) 같은 책, 368쪽 : “目昧不明, 目赤腫痛, 翳膜皆瘍, 皆爲熱也. 及目瞑, 俗謂之眼黑, 亦爲熱也. 或平日目無所見者, 熱氣鬱之甚也, 或言目昧爲肝腎虛冷者, 誤也. 是以妄謂肝主於目, 腎主童子, 故妄言目昧爲虛而冷也. 然腎水, 冬陰也, 虛則當熱, 肝木, 春陽也, 虛則當涼, 腎陰肝陽, 豈能同虛而爲冷者歟. … 不知經言熱甚目瞑眼黑也. 豈由寒爾. 又如仲景言, 傷寒病熱極則不識人, 乃目盲也, 『正理』曰由熱甚佛鬱於目而致之然也.”

184) 같은 책, 158, 159, 160, 365, 416쪽, 『素問·至眞要大論』第五章 第三節 : “帝曰 何謂逆從. 岐伯曰 逆者正治, 從者反治, 從少從多, 觀其事也. 帝曰 反治何謂. 岐伯曰 熱因寒用, 寒因熱用, 塞因塞用, 通因通用, 必伏其所主, 而先其所因, 其始則同, 其終則異, 可使破積, 可使潰堅, 可使氣和, 可使必已. 帝曰 善. 氣調而得者何如. 岐伯曰 逆之, 從之, 逆而從之, 從而逆之, 疎氣令調, 則其道也. 帝曰 善. 病之中外何如. 岐伯曰 從內之外者, 調其內, 從外之內者, 治其外, 從內之外, 而盛於外者, 先調其內, 而後治其外, 從外之內, 而盛於內者, 先治其外, 而後調其內, 中外不相及, 則治主病.”

調한다고 했습니다. … 毒을能耐하는 者는 厚藥으로써 하고 … 氣가 反하는 者는 病이 上에 在하면 이를 下에서 取하고 … 病이 中에 在하나 實하지도 않고 堅하지도 않으면서 잠시 聚하다가 잠시 散하다가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 有 毒無毒을 服用함에 法도가 있는가. … 久病者가 氣는 從하는데 康하지 못하거나, 病은 去했으나 瘡함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¹⁸⁵⁾은 정치, 반치, 약의 기미후박, 병의 소재에 따른 치료법 등에 대해 논하고 있다.

「六元正紀大論」의 “用熱遠熱하고 用涼遠涼하며, 用溫遠溫하고 用寒遠寒하며, 食宜도 同法으로 한다. 假가 있으면 反對로 하니, 이것이 그 道이며, 이에 反하는 者는 病이 作한다.”¹⁸⁶⁾, 「六元正紀大論」의 “帝께서 가라사대, 夫子께서 言하시기를, 用寒遠寒하고 用熱遠熱하라고 하는데, 余가 아직 그 이유를 알지 못하니, 願컨대 무엇을 일러 遠이라 하는가. … 그 犯한 者는 어떠한가?”¹⁸⁷⁾, 「六元正紀大論」의 “帝께서 가라사대 … 余

가 寒을 멀리하지 아니하고 熱을 멀리하지 아니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하는가. … 發하지도 아니하고 功裏하지도 아니하면서 寒을 犯하고 熱을 犯하면 어떠한가? … 病이 없는 者는 어떠한지 … 病이 生하는 것은 어떠한가. … 治함은 어떻게 하는가. … 鬱이 甚한 것, 이를 治함은 어떻게 하는가?”¹⁸⁸⁾ 등 문장은 빈번히 등장하는데 계절에 따른 기후를 고려하여 질병을 치료함을 말하는 것으로 한열을 특히 잘 살펴야 함을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至眞要大論」의 “標와 本을 知하면 이를 用함에 殆하지 아니하며 逆順을 밝게 知하면, 正行은 물을 것도 없다고 하였으니, 이를 이릅니다. … 標本의 道는 要하나 博하고 小하나 大하여, 可히 써 一을 言함에 百病의 害를 知하나니”¹⁸⁹⁾나 「標本病傳論」 “黃帝께서 가라사대, 病에는 標本이 있고 刺에는 逆從이 있는데, 어떻게 하는가. … 刺하는 方法은 반드시 陰陽과 前後의 相應함과

185) 같은 책, 162, 367쪽, 『素問·五常政大論』第六章: “故曰 補上下者從之, 治上下者逆之, 以所在寒熱盛衰而調之. 故曰 上取下取, 內取外取, 以求其過, 能毒者以厚藥, 不勝毒者以薄藥, 此之謂也. 氣反者, 病在上, 取之下, 病在下, 取之上, 病在中, 傍取之. 治熱以寒, 溫而行之, 治寒以熱, 涼而行之, 治溫以清, 冷而行之, 治清以溫, 熱而行之. 故消之, 削之, 吐之, 下之, 補之, 寫之, 久新同法. 帝曰 病在中而不實不堅, 且聚且散, 奈何. 岐伯曰 悉乎哉問也. 無積者求其臟, 虛則補之, 藥以祛之, 食以隨之, 行水瀆之, 和其中外, 可使畢已. 帝曰 有毒無毒, 服用有約乎. 岐伯曰 病有久新, 方有大小, 有毒無毒, 固宜常制矣. 大毒治病, 十去其六, 常毒治病, 十去其七, 小毒治病, 十去其八, 無毒治病, 十去其九. 穀肉果菜, 食養盡之, 無使過之. 傷其正也, 不盡, 行復如法, 必先歲氣, 無伐天和, 無盛盛, 無虛虛, 而遺人天殃, 無致邪, 無失正, 絕人長命. 帝曰 其久病者, 有氣從不康, 病去而瘡, 奈何. 岐伯曰 昭乎哉聖人之問也, 化不可代, 時不可違. 夫經絡以通, 血氣以從, 復其不足, 與衆齊同, 養之和之, 靜以待時, 謹守其氣, 無使傾移, 其形乃彰, 生氣以長, 命曰聖王. 故大要曰 無代化, 無違時, 必養必和, 待其來復, 此之謂也. 帝曰 善.”

186) 같은 책, 173쪽, 『素問·六元正紀大論』第一章 第二節: “用熱遠熱, 用涼遠涼, 用溫遠溫, 用寒遠寒, 食宜同法. 有假則反, 此其道也, 反是者病作矣.”

187) 같은 책, 173쪽, 『素問·六元正紀大論』第一章 第八節: “帝曰 夫子言用寒遠寒, 用熱遠熱, 余未知其然也. 願聞何謂遠. 岐伯曰 熱無犯熱, 寒無犯寒, 從者和, 逆者病, 不可不敬畏而遠之, 所謂時與六位也. 帝曰 溫涼何如. 岐伯曰

司氣以熱, 用熱無犯, 司氣以寒, 用寒無犯, 司氣以涼, 用涼無犯, 司氣以溫, 用溫無犯. 間氣同其主無犯, 異其主則小犯之, 是謂四畏, 必謹察之. 帝曰 善. 其犯者何如. 岐伯曰 天氣反時, 則可依時, 及勝其主則可犯, 以平爲期, 而不可過, 是謂邪氣反勝者. 故曰 無失天信, 無逆氣宜, 無翼其勝, 無贊其復, 是謂至治.”

188) 같은 책, 159, 163, 173, 403쪽, 『素問·六元正紀大論』第三章 第三節: “帝曰 善. 論言熱無犯熱, 寒無犯寒, 余欲不遠寒不遠熱奈何. 岐伯曰 悉乎哉問也. 發表不遠熱, 攻裏不遠寒. 帝曰 不發不攻, 而犯寒犯熱何如. 岐伯曰 寒熱內賊, 其病益甚. 帝曰 願聞無病者何如. 岐伯曰 無者生之, 有者甚之. 帝曰 生者何如. 岐伯曰 不遠熱則熱至, 不遠寒則寒至, 寒至則堅否, 腹滿, 痛急, 下利之病生矣. 熱至則身熱, 吐下霍亂, 痲痺瘡瘍, 脊鬱, 注下, 悶懣, 腫脹, 嘔, 飢, 衄, 頭痛, 骨節變, 肉痛, 血溢, 血泄, 淋瀝之病生矣. 帝曰 治之奈何. 岐伯曰 時必順之, 犯者治以勝也. 黃帝問曰 婦人重身, 毒之何如. 岐伯曰 有故無殞, 亦無殞也. 帝曰 願聞其故, 何謂也. 岐伯曰 大積大聚, 其可犯也, 衰其大半而止, 過者死. 帝曰 善. 鬱之甚者, 治之奈何. 岐伯曰 木鬱達之, 火鬱發之, 土鬱奪之, 金鬱泄之, 水鬱折之, 然調其氣過者折之, 以其畏也, 所謂寫之.”

189) 같은 책, 63, 163쪽, 『素問·至眞要大論』第四章 第二節: “知標與本, 用之不殆, 明知逆順, 正行無間, 此之謂也. 不知是者, 不足以言診, 足以亂經. 故大要曰 粗工嗜啜, 以爲可知, 言熱未已, 寒病復始, 同氣異形, 迷診亂經, 此之謂也. 夫標本之道, 要而博, 小而大, 可以言一而知百病之害, 言標與本, 易而勿損, 察本與標, 氣可令調, 明知勝復爲萬民式, 天之道畢矣.”

逆從의 得施함과 標本의 相移함을 別해야 합니다. … 標에 있어서 이를 標에서 求하는 경우가 있고 … 治함에 標를 取하여 得하는 경우가 있고 … 逆과 從을 알면 바르게 行함은 물론 것도 없고, 標本을 아는 者는 萬舉萬當하거니와, 標本을 알지 못하면 이를 妄行이라고 합니다.”¹⁹⁰⁾ 등은 標本의 重要性을 말하는 것으로 실제 증상도 살펴야 하지만 본이 무엇인지 살피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 것으로 유완소가 수차례 언급하는 내용이다.

이런 문장을 토대로 유완소는 치료원칙을 세웠다. 그의 처방원칙이 잘 요약된 문장은 다음과 같다.

“治病은 반드시 邪氣의 所在를 살피야 하니 病이 上에 있으면 治上하고, 病이 下에 있으면 治下해야 하니 中外藏府經絡도 모두 그러하다. 病이 熱하면 除熱하고 寒하면 退寒하니 육기에 모두 같은 法을 쓴다. 瀉實補虛하여 除邪養正하니 平하게 하여 常을 지키는 것이 醫의 道이다.”¹⁹¹⁾

이에 근거하여 유완소는 병위와 병증에 따라 적절한 처방을 구사할 것을 주장하였으며, 특히 尙海승제의 이론을 도입하여, 질병이 한증으로 보이거나 실제 한증이 아닌 경우, 그 반대의 경우 등등 질병의 원인과는 다른 성질의 증상을 띠는 경우가 많으므로 『소문』의 내용을 토대로 질병의 원인, 발병과정, 주병증 뿐 아니라 동반된 증을 자세히 살피고 꼭 맥을 확인하는 등 정확한 변증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실제 용약의 면에서 유완소는 한량한 약을 잘 쓰는 편이지만, 이는 정확한 변증을 통한 것으로,

모든 경우에 동일한 약을 쓴 것은 아니다. 유완소는 위에 소개한 내용 외에 또한 “寒은 熱하게 하고, 熱은 寒하게 하고, 溫은 淸하게 하고, 散한 것은 收하고 … 開하고 發하고, 適하여 故를 삼아 各 氣를 平안히 하고 淸淨하게 하면 病氣가 衰去하여 宗한 바로 돌아가니 이것이 治病의 大體입니다.”¹⁹²⁾¹⁹³⁾라 하여 정해진 처방에 얽매이지 않고 병에 따라 자유자재로 치료하였다. 용약에 대해서도 “무릇 大毒한 藥을 쓰는 것은 반드시 순한 藥이 효과를 거두지 못할 때 不得已하게 쓰는 것이다. 다행히 善藥이 있어 효과는 없어도 보익하고 손해는 없는 것이 있다면 어찌 大毒한 藥을 써서 험한 일을 당하게 하는가?”¹⁹⁴⁾, “故로 經에서 陰이 生하는 것은 본래 五味에 있다. 氣味를 合하여 服하면 補精益氣하니 全生의 術이 되므로 五畜五菜五果, 甘苦酸辛鹹이 補養의 要가 된다고 한 것이다. … 따라서 治病하는 法은 반드시 穀氣를 우선하는 것이다. … 五味가 養形함을 알 수 있는 것이다. 毒藥으로 攻邪하는 것은 나라가 用兵하는 것과 같으니, 모두 어찌할 수 없어 하는 것이다.”¹⁹⁵⁾라 하여 순한 약으로 효험이 없을

190) 같은 책, 159, 164, 380, 402쪽, 『素問·標本病傳論』第一章: “黃帝問曰 病有標本, 刺有逆從, 奈何. 岐伯對曰 凡刺之方, 必別陰陽, 前後相應, 逆從得施, 標本相移, 故曰有其標而求之於標, 有其本而求之於本, 有其本而求之於標, 有其標而求之於本, 故治有取標而得者, 有取本而得者, 有逆取而得者, 有從取而得者, 故知逆與從, 正行無間, 知標本者, 萬舉萬當, 不知標本, 是謂妄行.”

191) 같은 책, 365쪽: “大凡治病, 必求所在, 病在上者治其上, 病在下者治其下, 中外藏府經絡皆然. 病氣熱則除其熱, 寒則退其寒, 六氣同法, 瀉實補虛, 除邪養正, 平則守常, 醫之道也.”

192) 같은 책, 418쪽: “寒者熱之, 熱者寒之, 溫者淸之, 散者收之, 抑者散之, 燥者潤之, 急者緩之, 剛者靦之, 衰者補之, 強者瀉之, 堅者削之, 留者攻之, 客者除之, 勞者溫之溫養也, 結者散之, 燥者濡之, 損者益之補也, 逸者行之, 勞者動之, 驚者平之平常也常見常聞. 上之吐之, 下之泄之, 磨之灸之, 浴之薄之, 劫之熅之針劫其下, 開之發之, 適可爲故, 各安其氣, 必淸必淨, 則病氣衰去, 歸其所宗, 此治之大體也. 是以聖人法無定體.”

193) 『素問·至眞要大論』第五章: “寒한 者는 이를 熱하게 하고, 熱한 者는 이를 寒하게 하고, 微한 者는 이를 逆治하고, 甚한 者는 이를 從治하며, 堅한 者는 이를 削하고, 客한 者는 이를 驅除하고, 勞한 者는 이를 溫(補)하고, 結한 者는 이를 散하고, 急한 者는 이를 緩하게 하고, 散한 者는 이를 收하고, 損한 者는 이를 溫(補)하고, 逸한 者는 이를 行하게 하고, 勞한 者는 이를 平(靜)하게 하며 이를 上하고 이를 下하며, 이를 摩하고 이를 浴하며, 이를 薄하게 하고 이를 劫하며, 이를 開하고 이를 發하되, 事에 適하여 故를 삼는다.”

194) 劉河間, 앞의 책, 350쪽: “凡用大毒之藥, 必是善藥不能取效, 不得已而用之可也, 幸有善藥, 雖不能取效, 但有益而無損者, 何必用大毒之藥, 而設勞熾險也.”

195) 같은 책, 415쪽: “故經所謂陰之所生, 本在五味, 氣味合而服之, 以補精益氣, 所以爲全生之術, 故五畜五菜五果, 甘苦酸辛鹹, 此爲補養之要也. 何則? 穀入於口, 而聚於胃,

때 부득이하게 독약(강한 약)을 쓰는 것이 옳다고 하면서도, 약을 쓸 때는 독약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대신 평소에 몸을 자양하는 것은 음식이라 하여 음식으로 보양할 것을 강조하였다.

4. 劉完素의 攝生觀과 『內經』

유완소는 “養生의 道를 논하는 것은 마땅히 誠心으로 一切 害가 되는 것을 피하는 것이다”¹⁹⁶⁾, “무릇 眞氣를 기르는 法은 飲食有節, 起居有常하여 헛되이 勞하지 않고 損害되지 않게 하여, 陰陽和平하여 스스로 益함이 있게 하는 것이다”¹⁹⁷⁾ 라고 하여 양생을 강조하였으며 더불어 『黃帝內經素問·上古天真論』¹⁹⁸⁾, 『四氣調神大論』¹⁹⁹⁾의 양생에 관한 내용을 중시하였다. 또한 “이 六欲七情의 邪는 禍患의 근본이며 死亡의 원인이다”이라 하여 少思, 少念, 少事, 少語, 少笑, 少愁, 少樂, 少喜, 少怒, 少好, 少惡하여야 神氣가 안정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²⁰⁰⁾ 그리하여 『玉皇聖胎訣』의 “사람은 항상 心火를 丹田에 내려 外에서 入하지 못하고, 內에서 出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²⁰¹⁾ 부분을 들어 태식으로 降心火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內經』의 “陰이 生하는 바는 五味에 있다”²⁰²⁾, “飲食이 倍가 되면 腸胃가 傷한다.”²⁰³⁾,

胃爲水穀之海, 喜穀而惡藥, 藥之所入邪, 不若穀氣之先達, 故治病之法, 必以穀氣爲先, 是以聖人論眞邪之氣者, 謂汗生於穀, 不歸於藥石, 辯死生之候者, 謂安穀則生, 過期不惟數於五臟, 凡明胃氣爲本, 以此知五味能養形也. 雖毒藥攻邪, 如國之用兵, 蓋出於不得已也.”

196) 같은 책, 179쪽 : “若論養生之道, 則當誠心避忌一切能爲害者矣.”

197) 같은 책, 367쪽 : “夫養眞氣之法, 飲食有節, 起居有常, 不妄作勞, 無令損害, 陰陽和平, 自有益矣”

198) 같은 책, 393쪽, 『素問·上古天真論』第一章 第一節 第二節

199) 같은 책, 451쪽, 『素問·四氣調神大論』第二章

200) 같은 책, 179쪽 : “凡此六欲七情之邪, 而爲禍患之本, 死亡之因.”

201) 같은 책, 179쪽 : “人常降心火於丹田, 外境不入, 內境不出.”

202) 같은 책, 415쪽, 『素問·生氣通天論』第三章 第四節 : “陰之所生, 本在五味.”

203) 같은 책, 399쪽, 『素問·痺論』第三章 : “飲食自倍, 腸胃乃傷.”

“무릇 五味가 相濟하면 五宮이 傷하는 일이 없으니 養形하는 바이다.”²⁰⁴⁾, “故로 經에서 陰이 生하는 것은 본래 五味에 있다. 氣味를 合하여 服하면 補精益氣하니 全生之術이 되므로 五畜五菜五果, 甘苦酸辛鹹이 補養의 要가 된다고 한 것이다. … 이로써 五味가 能히 養形함을 알 수 있다”²⁰⁵⁾, “그러므로 形不足한 것은 氣로 溫하고, 精不足한 것은 味로 補하니 이는 膏粱藥石은 모두 病이 되기 쉽고 五穀五畜은 能히 補養한다는 것이다”²⁰⁶⁾ 라고 하여 養形할 수 있는 것은 五味 즉 음식임을 강조하였다.

III. 結論

이상으로 劉完素의 학술사상과, 그가 『內經』의 사상을 자신의 생각과 결합시켜 어떻게 이를 이끌어내게 되었는지도 살펴보았다. 본 논문은 한의가가 『內經』을 활용하여 자신만의 학술사상을 일으키는 과정을 더듬은 것이며 앞으로 『內經』을 공부하는 방법을 찾을 때, 자신의 학술사상을 세워보려고 할 때 한 번쯤 생각해 볼만한 것이다.

劉完素는 “法之與術, 悉出『內經』”이라 하여 자신의 모든 사상이 『內經』으로부터 나왔다고 하였으며, 실제 그의 저작에 『內經』을 많이 인용하였다. 특히 「至眞要大論」 「陰陽應象大論」 「六元正紀大論」 등의 문장을 많이 인용하였고 運氣 외 인체의 生理, 病理, 治病 등 내용을 고루 알고 있다. 『內經』이라는 창고에서 자신이 필요로 하는 문장들만 잘 골라서 손질한 것이다. 부분적이고 치우친 견해가 많아 비판을 많이 받은 것도 사실이지만 한 가지에 매달려 자신의 생각과 『內經』의 이론을 조화시키고 심화시키는 것은 오히려 자신의

204) 같은 책, 399쪽, 실제 『內經』에서는 보이지 않음 : “蓋五味相濟, 斯無五宮之傷, 所以養其形也.”

205) 같은 책, 415쪽 : “故經所謂陰之所生, 本在五味, 氣味合而服之, 以補精益氣, 所以爲全生之術, 故五畜五菜五果, 甘苦酸辛鹹, 此爲補養之要也. … 以此知五味能養形也.”

206) 같은 책, 420쪽 : “故形不足溫之以氣, 精不足補之以味, 是以膏粱理疾, 藥石蠲疾, 五穀五畜能補善養也.”

사상과 개성을 잘 드러내는 방법이며 그의 책을 읽는 사람들에게 흥미와 즐거움을 선사하는 일이기도 하다.

그는 병인으로써의 火熱을 중시하였다. 『內經』의 玄府 개념을 발전시켜 현부란 단순한 땀구멍 외에 人體氣機의 升降出入의 통로가 되는 것으로 현부가 막히면 열이 속에서鬱하게 되어 화열병을 유발하게 되며, 따라서 치법은 '發之'로 요약할 수 있다 하였다.

六氣皆從化火說은 『內經』의 기본바탕위에 유완소의 독창적인 견해가 어우러진 설로, 中寒症을 제외하고는 風寒濕燥氣가 熱로 化하기도 하고 또한 熱로부터 조성되기도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완소는 情志傷은 모두 열병임을 주장하였다. 이는 情志의 失常이 心神을 혼란하게 하여 결국 心火의 병이 되는 것이라는 점 외에 情志傷의 병증이 곧 『內經』의 陽明熱證임에 근거한 주장으로 情志傷의 치법은 降心火益腎水하는 것이다. 중풍 또한 情志의 폭발로 발생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는데, 이는 臟腑本氣說과 함께 유완소가 外感에 치우친 견해만 내놓는다는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점일 것이다.

臟腑本氣說은 인체가 자연의 기후에 완전히 지배된다는 관점에 반대하여 내놓은 것으로, 장부에는 本氣가 있다는 것이며 이는 곧 王冰의 설을 이은 것이다. 운기의 영향에 의해 臟腑의 六氣가 드러나게 되며, 질병의 발생에 있어 인체의 내재적인 조건이 중요함을 말하는 것이다.

유완소는 정확히 변증치료할 것을 강조하였다. 『內經』의 亢害承制의 이론을 질병의 본질을 파악하는 원리이자 치료법으로 삼아, 실제 병인과 병증이 맞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亢害承制 원리를 숙지하여 정확히 진단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그는 『內經』의 잡병 60여종을 모아 저작에 기록하고 病機, 治法, 治方 등을 덧붙이는 작업도 하였으나 본 논문에서 잡병을 자세히 살펴보는 못했다. 이 처방과 해설들이 후대 어떤 의가에게로 연결되는지는 앞으로 더 연구를 해보아야 할

부분이다.

유완소는 養生을 중시하여 해가 되는 모든 것은 피하라고 하였으며, 마음을 편히 하여 降心火하고 음식을 잘 먹어 養形하면 건강을 유지하게 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건강을 잃고 병들었을 경우, 질병을 진단함에 있어 증상, 맥 등을 통해 病位를 찾고 虛實寒熱標本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毒藥攻邪는 國之用兵과 같다고 하여 필요하다면 독약도 과감히 사용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의 이론은 『內經』을 계승하되 특히 火熱, 운기 등에 관한 부분을 발전시켰다. 『內經』의 잡병에 처방을 제시함을 통해 『內經』의 이론을 실제 치료에 끌어 쓰고자 노력한 것을 알 수 있으며, 그만의 학설로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에서도 계속 『內經』의 문장을 끌어오는 등, 자신의 생각과 『內經』의 뜻을 맞추어가는 작업을 그치지 않았음을 본 논문을 통해 살펴볼 수 있었다.

參考文獻

원전류

1. 洪元植, 『黃帝內經素問』, 서울, 傳統文化硏究會, 1994.
2. 洪元植, 『黃帝內經靈樞』, 서울, 傳統文化硏究會, 1999.
3. 劉河間 撰, 孫治熙 編校, 『河間醫集』,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4. 朴贊國 主編, 『懸吐黃帝內經講義』, 서울, 慶熙大學校 出版局, 1998.

저술류

1. 陳大舜 外 主編, 맹용재 외 옮김, 『各家學說 中國篇』, 서울, 대성의학사, 2001.
2. 洪元植 外 編著, 『增補中國醫學史』, 서울, 一中社, 2001.
3. 嚴世藝 主編, 『中國學術史』, 서울, 一中社, 1991.
4. 李聰甫 外 共編著, 『金元四大醫家學術思想研究』,

서울, 成輔社, 1982.

논문류

1. 李華安 外, 『金元四家的學術是非說』, 山東中醫學院學報, 第20卷 第1期, 1996, 7-8쪽.
2. 王雅麗, 『宋金時期寒溫之爭與河間學說的形成』, 吉林中醫藥, 第2期, 1998, 56-57쪽.
3. 易法銀, 『金元四大家論治火熱證之特色』, 中醫雜誌, 第 34卷 第6期, 1993, 328쪽.
4. 張傳友, 『鬱火致病探討』, 山東中醫雜誌, 第 21卷 第10期, 2002年 10月, 585쪽.
5. 孟繁潔 外, 『劉完素“開鬱”法之探討』, 浙江中醫雜誌, 2003, 372쪽.
6. 鄭曉紅, 『內經火鬱發之探析』, 遼寧中醫雜誌, 第26卷第2期, 1999年 2月, 55쪽.
7. 由風鳴, 『火鬱發之指導火熱病治療探微』, 遼寧中醫雜誌, 第26卷第2期, 1999年 2月, 57쪽.
8. 宋益東, 『“火鬱”及“火鬱發之”』, 山東中醫雜誌, 第 12卷第6期, 1993年, 7-9쪽.
9. 段咏慧 外, 『淺談金元四大家學術觀點與『黃帝內經』的淵源』, 江蘇中醫, 第22卷第10期, 2001, 10-11쪽.
10. 姜迎萍 外, 『劉完素治熱四法初探』, 國醫論壇, 第 17卷第6期, 2002年 11月, 16쪽
11. 沈邗, 『五鬱治法與臨床體會』, 陝西中醫, 第18卷第 6期, 1997年 6月, 257쪽

사전류

1. 『새漢韓辭典』, 東亞出版社, 1996.